스태튼 아일랜드 한인 커뮤니티 내 사업체 심방과 전도

BUSINESSES VISITATION MINISTRY IN KOREAN COMMUNITY AT STATEN ISLAND

By

LEE, SEONG SOO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Staten Island, New York, USA

2013

ABSTRACT

BUSINESSES VISITATION MINISTRY IN
KOREAN COMMUNITY AT STATEN ISLAND

BY
SEONG SOO LEE

From the 1970' s to 80' s Church of Korea has undergone remarkable growth. There were many factors that led to the remarkable growth, of Korean churches, and one of the factors was visitation. When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began in visitations, they shared in intimate time of fellowship and prayer. Resulting in the revival of the church.

The modern society live in a social setting that is rapidly changing, the nuclear family system value privacy above all other core value. In addition, when we see the immigrant community, from morning till evening, have to spend a majority of their time in the workplace.
Thus resulting in a propensity of individuality, when one lives in such a restricted and closed life. Changing becomes something unthinkable and as previously stated individual become more closed off. In addition when one receive attention and care from someone, one can' t help but feel burdened and even reject the care they received.

Therefore, if one continues tradition of visitations one can expect to receive

feeling of discords and half-hearted reaction from the modern society. Thus lies the problem of the modern day visitation.

Visit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reflects the essential quality found in community such as caring and sharing in life' s trials. Through their time of fellowship, they are able to diagnose and keep one another accountable in their spiritual condition. In addition, one can also promote spiritual growths as well. It also creates a personal time where one can share their hardships of the workplace and their lives.

Furthermore, one can also use visitation as an opportunity to convey the love of Christ to non-Christians and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Pastors and the ministry of the past realized in order for the growth of the Church, simple and casual visitation was not enough. But rather visitation centered on spiritual growth and counseling was the proper approach.

In order to achieve this, one must be able to look first to visit a variety of ways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relationship, in order to become a good shepherd.

Therefore, in this thesis, it will show visitation re-interpreted for the ministry and pastoral counseling theory for the real world scenes of visitations. When reflecting on the Korean community of Staten Island, the visitations aim to form a relationship with them to achieve the growth of faith through conduction and comfort and encouragement.

Acknowledgements

2010년 2월, 청운의 꿈을 안고 도미하여 목회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드디어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지 못할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비와 기도의 끊임없는 지원을 해 주신 아버지 이청일 목사님과 어머니 장순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대째 목회의 가업을 잇기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어머님의 기도를 이루면서 또 다른 좋은 결실을 안겨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목사로서의 삶이 어려운 길을 아시면서도 흔쾌히 귀한 딸을 내주셨던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이 제 아내가 되어 이렇게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함께 밤을 새워주며, ‘할 수 있다’는 격려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동역 자가 되어줌에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고백과 감사를 전하며 또한 아빠의 졸업식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하는 가은, 채은이 두 딸과 듬직한 아들 요한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축복이와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지칠 때 마다 큰 힘과 용기를 주셨던 뉴욕성결교회 장석진 담임목사님, 김송자 사모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교역자이지만 학업에 몰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성결교회 온 교우의 정성어린 헌금을 통한 장학금과 등록금을 매학기 지원해주셨던 집사님, 여러 권사님들 그리고 학교 다니라고 MTA Card를 지원해 주셨던 권사님, 점심 굶지 말라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던 권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지막 논문심사에 함께 해주었던 Site Team 징검다리 선교회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들 때면 어김없이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백창건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휴대폰으로 들려오는 교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사실은 채찍과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전화 한통 한통이 절대 포기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NYTS에서 함께 공부하며 좋은 결실을 같이 맺은 최요한 목사님, 백남준 목사님께도 축하를 전합니다.
이 학업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전하고 베푸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TABLE OF CONTENTS

LIST OF TABLES

LIST OF FIGURES

Ⅰ. 서 론

1. 연구 대상

1) 스태튼 아일랜드

본 교회가 위치한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는 뉴욕 시의 5개 자치구 중 한 구를 형성하며, 허드슨 강 하구에 떠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와 부근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 151.5 km^2, 인구 약 47만여명으로 리치먼드 군 (Richmond County)을 형성한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뉴욕시 다섯 개의 Borough 가운데 주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림 1. Map of Staten Island

스태튼 아일랜드의 북쪽지역은 Manhattan과 근접한 위치에 있고 무료 Ferry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Manhattan 직장인과 한인들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2009년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조사 결과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약 470,467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태튼 아일랜드 인종 비율은 Italian: 34.7%, Irish: 14.2%, German: 5.7%, Russian: 3.8%, Polish: 3.4%, English: 1.6%, Ukrainian: 1.3%, Norwegian: 1.0%, Greek: 1.0%, French: 0.9% 로 나타났다.[1]

[1] http://en.wikipedia.org/wiki/Staten_Island (accessed January 20, 2013)

이 섬의 이름은 네덜란드의 스타텐 제네랄(주 총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1664년 요크의 공작이 뉴네덜란드를 취득한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스 농부들이 이 섬에 집과 농장을 건립했다. 1898년 이 섬은 뉴욕 시의 자치구 중 하나가 된 후 교외 주택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 거주 인원은 약 3,500여명, 약 0.8%로 추산되며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2] 대부분의 한인은 네일 업계와 세탁업 그리고 식료품 사업을 하고 있다.

2) 뉴욕성결교회 배경

본 교회는 미주성결교회(Korean Evangelical Church of America)소속으로 1976년 장석진 목사의 개척으로 부활절을 기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해 6월 27일 주일 창립기념예배를 시작한 이래 1978년 스태튼 아일랜드에 정착한 이 후 올해로 37년을 맞이하게 된다. 교회의 설립자이며 본 교회의 담임인 장석진 목사(Rev. Samuel Jang)는 37년 동안 뉴욕성결교회를 목회하며 지속적인 부흥과 발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림 2. 뉴욕성결교회 외부 모습

장석진 목사는 숭실대학교(B.A.)와 서울신학대학교(M.Div.)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는 Faith Theological Seminary(PA)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일찌감치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대뉴욕지구한인

[2] http://macaulay.cuny.edu/eportfolios/koreanstudies/demographics/ (accessed Nobember 10, 2011)

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회장을 비롯하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회장까지 맡으며 교단뿐만 아니라 대내외 적으로 목회의 영역을 넓혀가며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1991년 9월 현재의 성전건축 완공과 동시에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한인교회로는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다.[3]

지역적으로 한인이 많이 분포 되어 있지 않은 스태튼 아일랜드 중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본 교회 발전의 이유를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본다면, 첫째는 교인들의 거주지가 스태튼 아일랜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쪽으로는 뉴저지와 근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북쪽으로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그리고 롱아일랜드의 장거리에서도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인들 대부분이 혈연지관 즉 가족관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려는데 기인한다. 두 번째는 연령대별로 조직화된 각 선교회의 활발한 활동과 교제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중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주일에는 예배 후 각 선교회 별로 진행되는 친교와 나눔이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교회의 대내외 활동이다. 디아스포라콘서트, 어린이·청소년 문화 축제 등과 같은 퍼포먼스 위주의 행사들과 New Hope Sunday 전도축제와 성도 간의 기념일 등의 축하 행사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솔선하여 동참 하고 있다.[4]

또한 장석진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이방선교의 모체가 되었던 것처럼 뉴욕성결교회도 해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목회의 현장에 적용해 나

---

[3]뉴욕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뉴욕성결교회 25년사 Mother Church* (서울: 진흥문화사, 2001), 64.

[4] http://www.nykec.org/ (accessed on January 23, 2013)

갔다.

그 결과 현재 뉴욕성결교회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국, 북싸이프러스, 러시아 모스크바, 남아공, 키르키스탄 등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일본, 카작스탄, 케냐,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아이티 등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여러 선교단체들(위클리프 성서번역회, 인터서브, 한국외항선교회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협력하고 있다. 총 27곳에 매월 선교사역을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매일새벽기도 시간마다 세계 각국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로 돕고 있다.

특히, 태국의 라후 신학교 증축과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마르테네스 델라또래에 선교센터 건축, 러시아 할렐루야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중국 연변의 용정지역에서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조선족들에게는 소 200 마리를 기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었던 조선족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들의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모두 개량해 주는 등 연변 지역의 잘살기 운동에 뉴욕성결교회가 앞장을 섰다. 이제는 중국 용정 뿐 아니라 청도, 상해지역까지 선교의 폭을 넓혀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선교에 합심하여 동참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성도들과 나누고 36년 동안 전진해 왔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5]

외형적인 발전 속에서도 동시에 성도들의 영성과 삶을 긴밀히 살피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위에서 살펴본 성장의 요인들 대부분이 친교와 관계를 통한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분주한 사업체의 경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에서 목회자와 충분한 교류로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 없음은 안타까운 현실

---

[5]Ibid., 54.

이다.
따라서 영적성숙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준비와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스태튼 아일랜드 내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접촉점을 마련하여 구원을 얻고 분주한 이민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범위

본 교회는 37년 동안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민자들의 방문과 등록 그리고 지연과 혈연으로 연결고리가 이루어졌고 성도의 교제와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더욱 굳건한 교회로 세워졌다.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중심, 건전한 도덕성, 근면성, 뜨거운 교육열과 진취적인 기업열 등을 가지고 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을 통해 미국사회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이방선교의 모체가 되었던 것처럼 본 교회역시 해외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현재 선교단체 3곳과 해외선교 15개국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을 듣고 이방선교의 문을 열었다.

1903년도 한국의 모 교회의 복음의 열정이 하와이로 전파되어 사탕수수밭에 처음 한인교회가 세워졌고, 그 열정이 이어져 미국 땅에 3천5백여 개의 한인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어 한인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6]

---

[6]안재도, *이민 광야와 코리안 아메리칸* (서울: 쿰란출판사, 2001), 26.

그 열정으로 지금까지 성장하며 달려온 본 교회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다시 한 번 고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회는 지역이라는 문화적 상황(Cultural context)안에 존재한다. 교회가 지역을 얼마나 접촉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지역을 얼마나 잘 이해하여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지와 사역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7]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교회 주변의 불신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을 심방하며 그들의 삶의 문제인 고민을 듣고 알아 기도하며 위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성도에게는 영적인 위로를 주며 불신자들에게는 관계형성을 통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
또한 미국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한 자진 출석으로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도행전적인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방볍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다가 갈 수 있어야 한다.

신자와 불신자를 언제든지 찾아 영적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이 일들을 통해 장차 본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외형과 내면의 신앙 성숙등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다.

3. 연구 목적과 목표

---

[7]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1997), 187.

1) 목적(Goal)

현대 이민사회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 신앙생활은 공예배 참석으로만 유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을 찾아가는 목회적 돌봄과 위로의 심방은 점점 실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도 교인들은 언제나 목회자의 위로와 관심을 얻기를 원하지만 심방에 대한 부담으로 기피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목회에서 심방에 대한 비중이 과거와는 현저히 줄어든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또한 형식적인 기간에 맞춘 심방이 아닌 교인들의 심리적 변화에 따른 목회 심방을 통해 돌봄과 위로가 이루어져야 한다. 돌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욕구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돌보고 위로한다는 것은 타인을 안다는 것이다.[8] 그리고 그들의 성장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자주 돌아보고 찾아 가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교인들도 일방적인 교회의 통보를 통한 심방을 받기 보다는 먼저 심방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자원하여 심방을 원하도록 한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좇을" 뿐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9] 따라서 불신자 심방을 통해 먼저는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후에 교회를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Milton Mayeroff, *On Caring 돌봄*, 이정기 윤영선 역 (부천: 한국상담신학연구소, 2009), 29.

[9]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 중 홍성철,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138.

2) 목표(Object)

(1) 의식 변화 목표

24시간 중 절반 이상을 사업체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한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손님과의 마찰, 피로누적으로 인해 심신이 연약한 상태다. 또한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생계유지만을 위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고취

기독교에서는 직업의 의미를 신으로부터 부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는 자기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칼뱅은 '하나님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셨다'는 소명으로 믿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값으로 산 바'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고전6:19-20)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따라서 일터는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이다.[10]
따라서 신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과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알고,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터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업체 방문을 통해 이러한 직업에 관한 소명의식을 설명하고 고취하도록 하며, 2013년 2월~3월까지는 기존 성

[10]Henry T. Blackaby & Kerry L. Skinner, *Called and Accountable 소명*, 최문정 역(서울: 두란노, 2002), 48.

도들을 대상으로 ‘소명발견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② 관계형성을 통한 심방의 거부감 해소

다변화 되어가는 시대에 따라, 신자와 불신자 모두 전통적인 심방의 형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걱정해 주면서 돌봄과 위로의 메신저로 다가설 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진학과 문제들 등,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함을 통해 거절과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도록 관계형성을 맺어 점차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을 부정과 비판이 아닌 적극적인 협력의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다.

③ 직장 및 사업체에서의 영적성장

사업체 심방을 통한 영적인 돌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곧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라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통해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랑이야 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11] 분주하고 바쁜 일상가운데서도 신앙의 발전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며, 그 안에서 복음증거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되도록 한다.

2) 행동 및 실천 변화

[11]Ibid., 50.

(1) 기간에 구애 받지 않는 심방

대부분 교회의 심방 기간은 봄과 가을로 정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는다. 또한 가정심방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이민사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한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현실이다.
심방은 특정기간이 아닌 신자의 신앙상태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의 문제들이 발생될 때 수시로 방문해서 영적인 지도와 신자들을 위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인 지도에서는 목회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시며 이 성령의 일에 신중한 분별과 지원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12]
따라서 정해진 일정에 따른 심방보다는 관계 증진을 위한 방문과 영적 돌봄으로서의 방문 중심으로 변환해야 한다.
따라서 요청에 의한 심방과 특정 기간을 통한 심방 보다는 멘토로서 삶을 공유하고 교제를 나누는 목적에서의 심방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성도들이 동참하는 심방과 전도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전도와 심방을 위해서는 훈련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12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사역을 전수해 주셨다. 사랑과 돌봄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을 택하여 사업체 심방과 전도에 함께 동참하도록 한다.

(3) 영적 성장을 위한 사업체에서 말씀 묵상

신자는 비록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사업체와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

[12]Gerald G. May, *Care of Mind Care of Spirit 영적지도와 상담*, 노종문 역 (서울: IVP, 2006), 89.

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13]
그렇게 될 때 신자들의 사업장 역시 하나님의 거하시는 터전임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영적성숙을 이루는 곳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3) 구조 변화

(1) 교구, 구역제도에서 Small Church로의 전환

기존에 편성된 교구, 구역제도를 가지고 작은 교회로의 전환을 실시하여, 교구장은 담당교역자로서 내 교회 같은 주인의식을 갖고 성도를 돌아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되며, 각 구역장들은 부교역자가 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작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안락과 특권보다도 다른 사람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이들에게 연민과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연민이다.[14]

따라서 Small Church의 교구장은 많은 성도들의 영적상태와 삶의 패턴 그리고 가정형편, 사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상담과 위로가 동반되는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한다. 수직구조의 틀을 벗어나 그들이 내적 자아를 공개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창출하고 가꿔 가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화 되어있는 작

[13]Brother Lawrenc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4), 86.

[14]J.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204.

은 교회들이 서로 도전을 받아 하나의 큰 교회를 부흥 시키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2) 전략적 심방과 전도를 위한 징검다리 선교회 구성과 교육

효과적인 사업체 방문을 위해서는 준비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동참한다면 전략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신자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친구가 생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전도폭발 훈련과 상담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한 대처법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3) 직장과 사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

하루의 시작을 사업터와 직장에서 열게 되는 많은 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적용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 말씀 본문의 배경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묵상지를 발행하여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일들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며, 사업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쟈끄 엘룰(Jacques Ellul)은 "하나님과 가능한 유일한 관계는 말씀 외에 어느 것에도 기반을 둘 수 없다"[15]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행동, 기적 등은 언제나 말씀을 수반하고 말씀에 의해 진정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말씀이 없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식"[16]이 말씀이라는 것

[15]Jacques Ellul, *The Humiliation of the Word*, Joyce M. Hanks, (Grand Rapids: Eerdmans, 1985), 71.

처럼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자들은 교회와 삶의 터전인 사업체에서의 균형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불신자에게도 친구와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심방과 전도 그리고 상담적 위로가 이루어져야 한다.

---

[16]Ibid., 107

Ⅱ. 심방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신학적 고찰

1. 성서적 이해

1)구약에 나타난 심방

성경에 나타난 심방의 첫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오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 되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심의 목적은 그를 소생케 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추적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며, 치유하시고자 함이었다.

'심방'의 어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파카드'에서 시작되었고, '방문하다(visit)'와 '돌아본다(have care for)'는 뜻이다. 따라서 심방이란 사전적 의미의 "방문하여 찾아 본다"는 뜻과 더불어 목회적 차원의 용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받은 심방자인 목회자가 피심방자인 교인을 찾아가 예배와 대화를 통해 위로하고, 돌보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17]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참 목자로서 인간을 목회하시고, 그의 목회적 돌봄을 입은 자들이 또 다시 다른 이들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18]
목회적 돌봄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회생의 기회를 주시고 위로하셨던 심방에 기

[17]박원근, *목회심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0.

[18]복음주의 실천신학회 김한옥, *복음주의 실천신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174.

초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시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다. 구약성경 여러 곳(시23:1-6; 80:1; 100:3; 사40:11, 렘31:10, 겔34:11 이하)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돌봄과 순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19]

(1) 하나님의 심방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심방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며 처음 나타나게 된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사랑의 표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창 3:21) 공의의 하나님과 위로와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을 향해 구원의 약속을 계시하신다.(창3:15)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심방이 나타나 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 할 땅으로 가라' 는 명령과 함께 비전의 말씀 '복의 근원' 으로 그를 위로하신다.(창12:1~2) 또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사라의 복수에 의한 학대를 피해 도망 했을 때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심방하여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갈의 고백 속에 '살피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창16:7~13)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역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명령과 함께 능력의 지팡이를 선사하신다.(출4:20)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을 기억하게 하시며 친히 그 조상들에게 찾아와 은혜와 위로와 돌봄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다.

[19]Ibid.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시는 사건이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심방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고 계신 다는 것이다. 기독교외 다른 종교는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과 수련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지만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언제나 찾고자 하시며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2) 선지자들의 심방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선지자들 중 심방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이다. 다윗의 37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 격전장에 보내어 죽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기 위해 '부자들의 많은 양들과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고 깨닫게 했다(삼상 12:1~14).
때에 맞춘 심방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심방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20]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가 그 집에서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린 날까지 안심하게 하였다(왕상 17:8-16).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채무 문제에 대해 하소연 하게 되자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그는 그녀의 한 병 기름으로 많은 부채를 갚고도 남음이 있게 해 주었다(왕하 4:1-7). 또 엘리사가 수넴에 갔다가 한 귀한 여인의 정성

[20]오윤표, *심방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28.

어린 음식을 대접 받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엘리사는 그녀가 무자함을 알고 득남(得男)의 축복을 하였고 그녀는 아들을 갖게 된다(왕하 4:8-37).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후 왕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었음을 선포케 하셨다(사 38:1-18)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난 심방의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심방 역시 많은 기사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하나님은 꿈으로, 우림으로,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셔서 집행과 책망, 위로와 격려도 하셨다.[21]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오셨듯이 심방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위로하는 사역인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렇듯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주고, 구원해주고, 고쳐주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22]

2) 신약에 나타난 심방

(1) 예수그리스도의 심방

요한복음 1장 10~11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

[21]Ibid., 24.

[22]제이 E. 아담스, *성공적인 목회사역*, 정삼지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79), 96-99.

신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심을 말하고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심으로써 심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와 역사를 방문하셨다는 히브리적 표현은 나사렛 예수의 사역 가운데서 기념비적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23]

예수님의 전도사역은 곧 심방이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찾아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려주신 적극적인 사역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 가운데 병약한 자를 고치시고 심방 하셨던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의 형벌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예수는 구원을 위해 대중을 상대하기도 하셨지만 개개인의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고 관심을 깊이 가지셨다. 누가복음19:1-10에 보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삭개오를 특별히 찾아 주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여 심방하심으로 삭개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하셨다. 이 심방이야말로 예수님의 심방사역에서 가장 으뜸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로 찾아가 부르심으로써 이른바 '직장 심방의 본'을 보이셨다.

마태복음4:17-22에 보면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들을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 부르셨고, 마가복음2:14-15에 보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 부르셨다.[24]

예수님은 촌락이나 어디든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

---

[23]토마스 오든,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2004), 329.

[24]김용호 대현교회 원로목사, *심방과 목회*, "Resources on the Web," "http://blog.naver.com/ibs5?Redirect=Log&logNo=80094524053 (accessed Nobember 10, 2011).

시는 것을 볼 때 심방사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 천사들의 심방

신약에서 천사들의 심방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구약과 다른 점은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은 인간에게 경고와 지시, 선포가 대부분이었으나, 그러나 신약에 나타난 천사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일이 많았다.

(3) 사도들의 심방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욥바에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생각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 찾아 온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임을 알고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심방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한다. 또 사도행전 8:14~17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라고 해서 심방하고 기도했음을 본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곳을 심방하며 사역했다. 사도행전15:36을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하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심방을 본받아 심방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굳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신,구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그렇기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본 받는 우리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다.

2. 신학적 고찰

심방의 신학적 연구 질문에 앞서 목회학에서의 목회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회의 정의는 목회를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으로 정의한다.[25] 독일어권에서 목회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는 'Seelsorge'이다. 이 단어는 'Seele(영혼)'와 'Sorge(돌봄)'이라는 두 명사가 하나로 된 합성어이다. 이 말은 목회의 이론적인 면, 즉 학문으로서의 목회신학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목회 활동을 표현하는데도 동일하게 사용된다.[26]
또한 목회(pastoral)라는 단어의 어원이 목자(shepherd)에서 유래되었듯이 가축을 치며, 양 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보호하는 목자로서 나타나셨고(시23:1, 사40:1-11, 겔34:15-16),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가리켜 목자라고 불렀다(출3:1, 민27:17, 왕상22:17, 렘2:8, 10:21, 23:1).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독이나 장로 혹은 설교자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요10:11, 14)라고 불렀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요21:15-17).

한편, 목회적 돌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트루나이젠

---

[25]성결교회 신학연구위원회, *성결교회 목회*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7), 158.

[26]Reisig, *복음주의 실천신학 개론*, 174.

(Thurneysen)은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그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기까지의 모든 대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죄를 지신 예수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면 죄인인 인간이 용서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목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모든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게 된다.

케롤 와이즈(Carol Wise)는 가장 포괄적이고 명료한 정의를 내린 학자 중의 하나로 "목회적 돌봄은 필요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to meet the people at the point of need)그들에게 복음의 내적 의미(inner meaning)를 전달하는 것이며, 동시에 목회자와 회중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화해(reconciliation), 용서(forgiveness), 그리고 치유(healing)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27]

존 페톤(John Patton)은 목회적 돌봄을 "어떤 고정된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애정(affection)과 존중감(regard)을 갖고 돌봄의 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28] 존 페톤은 케롤 와이즈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의를 내리지만 돌봄의 행위의 여러 차원보다는 돌봄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회중을 향한 목회자의 애정과 존중감을 더 중시한다. 이와 같이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초점은 회중의 필요, 그리고 목회자와 회중과의 관계에 있다.

회중의 필요를 알고, 회중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의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심방이다. 따라서 심방은 목회에 있어서 돌보고 영성의 성장과 훈련을 시키는 활동(care and discipline)을 의미하며 모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27]Carol Wise, *영혼을 돌보는 목자*, 이기승 역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8)

[28]John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하는 능동적 관심, 성도와의 상담 등이 심방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이 되는 것이다.[29] 또한 심방은 돌아봄과 치료의 수단으로서의 목회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돌아본다' 라는 심방의 의미는 돌아보는 자, 곧 목자는 양들을 향해 인도자로서(단12:3), 봉사자로서(마20:28), 공급자로서(요10:9), 지도자로서(벧전 5:2-3)의 사명의 범주를 말한다.[30]

목회적 돌봄의 카테고리는 비단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 세상까지도 포괄한다. 케논 칼라한(Kennon L. Callahan)은 전통적인 '하나님→교회→세상' 이라는 수직적이며 계급적인 교회 구조보다는 '하나님→세상←교회' 라는 상호적이며 역동적인 관계구조를 제시한다.[31] 따라서 목회적 돌봄은 심방을 통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목회적 돌봄의 심방' 은 영혼의 보살핌이며, 그 목표는 구원이 된다.
또한 목회적 돌봄의 수단과 방법은 기독교 영성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성이 아닌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이런 신학적 근거를 종합하여 목회 가운데 찾아가는 심방을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찾아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모습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에 대해 돌봄과 위로로 대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

[29]제이 E. 아담스, *기독교 상담교본*, 김용순 역 (서울: 보이스사, 1982), 142.

[30]민경배, *목회신학원론* (서울: 기독교서회, 1973), 9-10.

[31]Kennon L. Callahan, *Effective Church Leadership* (SanFrancisco: Harper & Row, 1990)

Ⅲ. 심방의 필요성

1. 사회적 이유

최근 기독교인의 수는 정체 현상을 보이다 못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크게는 기독교내에서 보여 지는 실망스러운 사건들로 인한 사회적 공신력의 저하가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으로 획일화 되고 객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내세우며 사회적 현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등의 사조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과학주의, 기술주의, 경제주의가 현대 문화의 특징을 형성하면서 우상화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과학주의는 과학의 기술을 통해 자연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인간 스스로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과학을 절대적 위치로 끌어 올렸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물질적 부요라는 경제주의의 가속적 발달을 가져오게 했으며, 인간의 사고에도 경제 중심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세상의 상처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동정어린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32]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이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신성한 무리로 격리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분명히 규정된다. 기독교적 운동

[32]David A. Fraser and Tony Campolo,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강대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1995), 281.

의 많은 문제점은 교회가 전적으로 기독교적이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지 않는데 있다.[33]

이성을 중시하며 등장한 모더니즘이 추구한 정치적 해방과 철학적 사변도 하나의 이야기(거대 서사 혹은 큰 이야기)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역시 오염되기도 하고 회의와 불신, 의심속에 빠져들면서 인본주의 사상, 윤리적 타락이 기독교 내에 은밀하게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훼손하고 있다.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신앙이 세상과 연관되는 방식의 여러 가능성과 실질적 양식들을 아주 세밀한 형태로 이론화 하였다.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위에 계신 그리스도’, ‘역설절 관계를 갖는 그리스도와 문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입장은 비록 인간 문화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개혁되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동체의 모든 생활을 잘 정돈하는 것은 교회가 가진 사명의 기본적인 부분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깊은 곳에 참여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스도는 개인의 생활 개혁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도 오셨다.[34]

---

[33]Ibid

[34]Ibid., 222.

따라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심방하는 일은 그들로부터 사랑으로 경청하는 공감적 청취(emphatic listening)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각종 문제와 위기,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는 사랑으로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또한 공감적 참여(emphatic participation)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며, 이 공감적 참여의 출발점은 공감적 청취가 되는 것이다. 공감적 청취와 공감적 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뢰와 개방성이다. 이것이 없이는 목회자와 회중사이에 살아 있는 관계, 즉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신 구속적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35]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삶 전반에 이르도록 목회적인 돌봄, 즉 심방을 통해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심방을 통한 영적 돌봄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장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심방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35]Reisig, *성결교회 목회*, 160.

2. 상담학적 이유

미국 이민 사회에서 한국인의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영업을 통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손님과의 작은 마찰로 인한 분쟁,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등 삶의 고민과 걱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간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 생활과 대다수의 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진로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자녀들은 성장할수록 미국문화에 익숙해져가며 부모와의 거리는 언어의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멀어져 세대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는 부모들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집 밖에서는 아메리칸으로 살지만 집에 와서는 그 반대로 철저히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야 하고, 특히 부모들의 일방적이고 반 강요적인 한국적 사고방식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문화권 속에서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 특수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부모들의 이해 부족과 맞벌이로 인한 시간의 부족은 대화의 단절 또는 무관심을 발생시킨다.[36]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문제가 이어진다. 주일성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외에는 예배생활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살게 된다. 성도들의 바쁘고 분주한 삶속에서 공 예배 참석만으로 그들의 영성이 성장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기록된 ‘디다케’는 주일을 ‘제8일’이라 하였

[36]김은희, *21세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동화, 1999), 95.

다. 이는 세상에 없는 날이라는 뜻이며, 다시 말하면 ‘저 세상의 날’, 즉 ‘천국의 날’을 뜻한다.[37]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일예배와 교회의 삶은 마치 천국을 사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웠다.[38] 그러나 예배에서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참회가 없이 내재되 있는 갈등과 고민의 그늘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면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일 교회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해결의 응답을 구한다. 하지만 정작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해야 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구체적 사정을 알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인 이론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내담자의 상담은 말씀을 근거로 해답을 제시하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상담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심방을 위해서는 목회상담학적인 이론과 실제가 현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러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내면의 갈등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목회자의 능력이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

---

[37]Josef A. Jugmann, *The Early Liturgy: To the Time of Gregory the Great*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1959), 19-22.

[38]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 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40.

Ⅳ. 비기독교인 사업체 심방을 위한 전도의 재해석

1. 전도의 이해

1) 문자적 해석

전도란 기독교만의 용어는 아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도(道)를 전한다’는 뜻으로서 기독교에서는 그 도를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기독교의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도와 인도는 다른 것인데 단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인도이며,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다.
비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심방의 경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교회로의 초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성경적인 의미

신약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전도의 다양한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많은 유사어를 사용하였다.
이 유사어 중 ‘케류소(*κηρυσσω*)’와 ‘마르튜레오(*μαρτυρεω*)’를 중시하여 ‘유앙겔리온(*ευαγγελιον*)’과 더불어 전도의 3대 단어라고 부른다.[39]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ευαγγελιον*)으로써 ‘유(좋은)’와 ‘앙겔리온(메시지를 전하다, 선포하다, 광고하다)’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결국 이 합성어의 의미는 명사로 쓰일 때는 ‘좋은 소식’이고, 동사로 쓰일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이며, 사람으로 쓰일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구분된다.

---

[39]Reisig, *성결교회 목회*, 534.

신약성경에서 세 번 사용되었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전도자"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전도인"으로 각각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유앙겔리온과 그 파생어는 "전도", "전도하다" 및 "전도자"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또한 "전도" 또는 "복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명사형, 유앙겔리온은 신약성경에선 76번이나 나올 만큼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며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이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궁극정인 평안이 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에 기쁜 소식인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먼저 믿은 자들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직접 비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심방과 전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3) 로잔 선언에서 나타난 전도의 정의

전도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전도는 어원적으로 '좋은 소식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잔언약 또한 전도의 본질을 우선적으로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으로 기술한다.[40]
로잔선언에 나타난 전도에 관한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그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현존(present)의 전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영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40]홍성철, *The Theology of Evangelism 전도학*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6), 145.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구원받은 자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줌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관계전도의 바탕이 된다.

(2) 선포(proclamation)의 전도

아무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오직 피전도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

(3) 설득(persuasion)의 전도

선포한 후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이것까지 되어져야 온전한 전도라고 할 수 있다.

4) 전도학적 접근

(1)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에서 전도란, 피전도자들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41]

[41]Reisig, *성결교회 목회*, 535.

(2)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전도는 좁은 의미의 전도의 개념에 덧붙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때까지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전도학이라는 학문의 영역 안에서 새신자 양육과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등이 포함된다. [42]

5) 전도의 영적 의미

(1) 영적 전투의 최전방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다. 따라서 전도자는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전도자는 영적인 돈키호테가 될 수 밖에 없다. 가장 파괴력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43]이기 때문에 말씀의 무장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며, 영적 군수품이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기도 하다.

(2) 영적 주인을 바꾸어 놓는 일이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영

---

[42]Ibid.

[43]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에베소서 6:17)

적 주인을 바꾸는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는 영적 주인을 바꾸는 일인 것이다.

(3) 영적인 출산이다.

전도는 영적인 출산으로 비유할 수 있기에, 이미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를 출산하기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하는 영적인 태교가 필요하다.[44]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의 넓은 의미가 그 사람을 또 다른 전도자로 만들어 내는 것 까지를 포함하므로 영적인 출산만을 하였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인 양 그 사람에게서 손을 떼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영적인 사생아를 낳으면 안 된다.

복음의 궁극적 의미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까지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 세워가는 일까지를 말한다.[45]

2. 전도의 성경적 당위성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죄인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그들도 누군가에게 경험한 복음을 전해야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의식 속에는 전도에 대한 의무감을 떨치지 못한다. 전도에 대한 설교와 다른 사람의 구원의 경험을 기쁨으로 간증하는 것을 듣기도 하며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도 전도의 압박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사실과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타당성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

[44]국제전도훈련연구소, “태신자 전도의 강점과 약점,” *이반젤리즘*, February 10, 2008, 15.

[45]Ibid.

것이다.

1) 인간의 상태

현대의 인간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루해 하며, 그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문명의 이기 속에 빠져 보지만 그럴수록 자기연민과 미움에 빠져버리게 된다.

내적 감정을 증오와 폭력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은 작을지라도 신음소리를 내며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상담학교, 종교의 융성(隆盛), 자살 등 이런 내용을 뒷받침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환경적 자유가 아니라 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자유이다. 이 자유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탈출한 경험을 들려주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야 한다.

2) 종말의 비극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은 하나님과 소망 없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 죽음과 그 후에 있을 비극을 의미한다. 성경은 죽음 후에 전개되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몇 가지 진리가 들어 있다.

(1) 부자와 거지가 이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삶을 영위했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는 사실이다.[46]

(2) 죽음이 모든 것을 마감하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46]홍성철, *현대인을 위한 복음전도의 성경적 모델*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163.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3) 현재의 삶이 죽음 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이다.

(4) 부자였던 사람도 동생들의 영혼과 영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이 너무나 분명해지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 무관심 할 수 없다.

3) 마음의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또 다른 당위성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 즉 마음의 기쁨이다. 외적환경이 열악해도 그들은 내적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의 원천은 마음에 내주 하시는 성령이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죄인들이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은 기쁨을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킨다. 죄인의 죄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부활, 희생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분께 나올 때 죄용서 받는 역사와 성령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며 그때 마음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사실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제공한다.[47]

4) 주님의 명령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간헐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주신 명령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한 가지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며 만민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어떤 사람도 이 복음에서 제외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

[47]국제전도훈련연구소,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전도에 대한 교육”, *이반젤리즘*, January 10, 2007, 34-35.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이며 순종을 통해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된 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셨다. 결국 복음전도의 열쇠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엄청난 열매를 거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자들, 즉 안팎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전도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된다. 위 네 가지 당위성은 주변에서, 밑에서, 속에서, 그리고 위에서 주어지는 당위성이다. 이것은 의무이자 특권이기에 복음전도에 매진해야 한다.[48]

3. 전도의 방법

전도의 방법은 그 내용을 비기독교인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통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 활용되든 그 방법은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끝나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방법이 강조된 나머지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방법이 복음의 내용이 "진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정확하고 깊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방법은 더 이상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없다.[49]

이십 세기 전도의 또 다른 특징은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 전파이다. 이러한 복음전도의 방법은 교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변화와 훈련을 통한 전도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

[48]홍성철, "*복음전도의 성경적 당위성*",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논총, 2004. 525-542.

[49] James I. Packer,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IL: Inter Varsity Press, 1976), 86.

>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은 그 외에도 마가복음 16:14-28절, 누가복음 24:44-49절, 요한복음 20:19-23, 사도행전 1:6-8 에 각기 다른 형태로 나와 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수혜자를 강조하며, 누가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요한복음은 복음을 위한 파송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지역적 확대를 각각 강조한다.[50]

제자들에게 전수된 지상명령의 사명은 복음화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제자들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세상을 복음화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것이 제자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이다.[51]

일년에 한 사람을 훈련하고 다음 해애 그들이 가각 다른 사람들을 훈련한다면, 그것은 증가(addition)이 아니라 배가(multiplication)이기 때문이다.[52]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동사를 제시하셨다. 그것이 바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이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 동사가 된다.[53]

---

[50]Reisig,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155.

[51]Reisig, *The Theology of Evangelism 전도학*, 305.

[52]레이튼 포드,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이숙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89), 118-119.

[53]홍성철, *주님의 지상명령 성경적 의미와 적용*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4), 77.

결국 주님은 세계 복음화의 효과적인 방법인 제자화를 제시하셨고, 동시에 제자화의 방법으로 세 동사를 제시하신 것이다.

먼저, ‘가라’에 대한 말씀은 무엇보다 제자들이 불신자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 명령은 바로 불신자들과 접촉하라는 것이다.
접촉의 목적은 불신자들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얻는 신뢰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라는 말씀은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과 삶을 나누라는 혁신적인 명령이다.
그들은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준엄한 명령이었다.[54]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제자화의 또 다른 방법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세례는 두 가지 양식으로 쓰이는데, 성령세례와 물세례가 그것이다.
성령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거듭난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성령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충만이다. 그의 고범죄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 그때부터 깨끗한 삶, 전도의 삶, 주님을 말씀대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세례는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의식이다. 전도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교제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
밖으로는 믿음을 전하게 되며, 안으로 사랑을 나누며, 위로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

[54]Ibid., 81.

주님의 명령에 포함된 제자화의 마지막 방법은 가르치라이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성공적으로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데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명령이 바로 가르침이다. 물론 가르침의 내용은 성경의 말씀이다.
성경말씀은 그들의 삶에 두 가지를 가르친다. 하나는 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다. 옛날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가르침은 새로운 성경적 생활 방식이다.[55]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그분의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그것을 그들의 생활방식으로 삼아야 한다. 주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삶의 방식으로 삼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변화된 삶을 무기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수용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전도자는 무엇보다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없고 또 제자로 삼을 수도 없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개인의 삶이 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두 가지 기초,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으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55]로버트 콜먼, *오늘의 전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86), 190.

전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56]

4. 웨슬리 신학과 전도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의 사역 목표가 '전도'였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회심 이래 그가 53년에 걸쳐 25만 마일의 전도여행을 한 것이나,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할애했다는 사실은, 웨슬리가 곧 전도의 사람이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만인을 위한 복음 웨슬레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이다. 그리고 웨슬레는 그 신학을 전도의 현장에서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레에게 있어서 전도에 직결되지 않은 신학은 산신학(a living theology)이 될 수 없다. 전도와 실제 신앙 생활에 적응성이 없는 신학은 불필요한 것이다. 웨슬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코자 열의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였다. 이 전도에서 웨슬레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위안과 소망을 전했다.[57]

웨슬레는 그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권한 적이 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또는 이런 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최선을 다해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당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전력을 다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 때문에 웨슬레는 전도에 더욱 열정적이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

[56]홍성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5), 63.

[57]조종남, "웨슬리신학과 성결교회(4)", *활천 408호*, May 1984, 36-43.

이 전도에 대한 그의 중대한 관심으로 전도는 웨슬레 신학의 강조점이 된 것이다.

웨슬레는 영국교회가 정한 교구나 제도보다 전도하는 사명을 더 중요시 하였다. 웨슬레는 윌리암스 박사가 지적 했듯이 선교, 곧 복음 선포하는 것을 주요한 교회의 표적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웨슬레가 교회의 통일성, 제도도 중요시 하였지만, 그보다는 전도를 더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레는 그의 신학적 과업과 아울러 영국 전국을 누비면서 전도하였다.[58]

웨슬레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이다. 그의 신학은 감리교를 탄생시켰고 교회가 교회로써의 기능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웨슬레의 삶을 본 받아 복음으로, 전도로 회복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방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사역이 회복되어야 한다.

---

[58]조종남, “웨슬리신학과 성결교회(1)”, *활천 405호*, October 1983, 36-43.

Ⅴ. 심방을 위한 목회상담

1. 목회상담의 이해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은 상담이라는 공통 분모의 개념이 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목회 상담을 일반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없는 것을 목회라는 서술적 용어, 즉 상담의 장(field)이 목회이기 때문이며 또 다른 특징은 신앙 요소의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과 치료에 있다.[59]

1) 목회상담의 정의

목회상담이란 고통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과 신실하신 임재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것들을 실현해 가는 가운데 더욱 넉넉한 삶을 살도록 그들의 능력을 증진시켜 주므로 그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 시간적으로 제한된 관계 설정을 의미한다.[60]
목회 상담의 본질은 고통 받는 사람이 안고 있는 상처, 내면적 투쟁, 불안을 그의 백성에게 놀라운 상담자(The Wonderful Counselor)로 알려지신 하나님과의 역동적 치유 관계로 인도하도록 돕는 것이다.[61]

목회 상담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62] 그러므로 내담자를

[59]Lars I. Granberg and others,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67), 76.

[60]Davie G. Benner, *전략적 목회 상담*, 이정기 역(부천: 예영B&P, 2005), 40.

[61]Ibid.

[62]Ralph G. Turnbull,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67), 21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주의 실천신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208.에서 재인용.

변화시키는 요인은 상담 기법이나 상담 이론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라는 사고에 근거하지 않는 상담은 본질적으로 목회 상담이 아니다. 전통적인 목회 상담에서는 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신앙 요소를 통해 치료하는 것이 그 특성이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신앙을 성장시킴으로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신앙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은 목회 상담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다.[63]

목회상담에서는 상담의 기술이나 이론을 가지고 변화 시킨 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변화한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저명한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는 목회적 돌봄, 목회상담, 목회 심리치료 사이의 용어를 구별하는 이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목회적 돌봄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64] 삶의 압박감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을 돕는, 보다 전화된 목회적 돌봄으로 본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로 내담자가 치유와 학습, 그리고 인격적-영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의 많은 문제 앞에 심방을 통한 목회상담적 접근은 영혼의 돌봄과 치유,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John S. Bonnell는 "교회는 생성 초기부터 목사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지식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데 확실한 기술을 요구 받아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생성 이래로 목사들은 목회 돌봄(pastoral care)에서 잘못된 영혼들을 돌보는 영적 도움의 원리나 기법 등에 대해서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65]

---

[63]Edward P. Wimberly, *Prayer in Pastoral Counseling* (Louisville: Westminster, 1990), 15.

[64]이정기, *목회상담입문* (서울: 도서출판 목회상담, 2007), 17.

[65]John Sutherland Bonnell, *Psychology for Pastor and People* (New York: Harper & Brothers.

마치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모든 진료 과정을 후학들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토의해왔던 것처럼 해 왔어야만 했다는 뜻이다.

교인들의 문제 해결과 신앙 관리를 위해 목회자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상담하기 시작했던 것은 교회의 생성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목회 상담은 학문으로 정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었던 목회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우 광의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고난당하는 인간을 찾아오신 그 현장을 최초 상담의 장으로서 볼 수 있다.

Adams는 치료 심리적 입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죄악 된 행동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면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또 Charle R. Solomon은 목회 상담의 목적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논증했다.

이러한 입장은 1970년대 초반에 목회자들에게 급속도로 파급되었으며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의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었던 목회상담학의 영역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66]

2) 목회상담의 목표와 목적

목회 상담도 일반 상담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의 효과적인 변화에 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충분한 자기 이해, 즉 자신이 누구인가를

1948), 15.

[66]Reisig, *복음주의 실천신학*, 213.

알도록 돕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모든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이 바른 습관으로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Evans C. Stephen은 "기독교 상담의 주요 목표는 단지 사람들이 " 정상 "이 되도록 돕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67] 이것은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Lawrence J. Crabb은 이것을 부연해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환경에 성경적으로 반응하도록 돕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주된 상담의 목표는 영적이며 심리적인 성숙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성숙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 순종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인격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그 변화란 태도와 욕망, 생활 양식, 사고방식, 지각 그리고 내면적인 성품인 인격이 포함된다.

이에 Collins는 목회 상담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내담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헌신을 권고하는 것,

둘째, 내담자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

셋째, 내담자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도록 돕는 것,

넷째, 내담자에게 그리스도의 표준과 태도 그리고 삶의 모습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

다섯째, 내담자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Collins가 상담에 있어서 용서를 포함시킨 것은 괄목할 일이다.

[67]James D. Hamilton, *The Ministry of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72), 19.

일반상담에서는 마음의 상처 실수, 잘못 그리고 죄 따위는 단지 잊도록 요구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구나 갖는 것”이라고 일반화 시키지만 목회상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잘 못들을 용서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상담과 일반 상담을 구별시켜 주는 요소인 동시에 목회상담의 특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Adams는 목회 상담의 토대는 성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의 본질상 가치관, 사고, 관계, 자세, 행위 등을 성경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 상담이므로 목회 상담에 있어서 성경보다 그러한 변화를 초래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68]

3) 목회상담의 특성

목회 상담의 본질을 표현하자면 상담 자체의 행위보다는 상담자의 인격이나 자신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목회 상담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목회 상담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인성(wholeness)이다.[69] 이것은 목회 상담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정황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목회상담에서 기대되는 것이다.
특별히 목회 상담학적 관점에서 존 웨슬리의 신학은 두가지 특성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고, 둘째는 상호 책임성이다. 전자는 웨슬리 신학의 요체인 성화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후자는 감리교도의 신앙 전통으로 수행해온

---

[68]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1970), 170

[6969]Reisig, *복음주의 실천신학*, 216.

목회 돌봄 행위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70]

거듭난 자로써의 중생은 생명의 살림을 뜻하며, 성결은 참된 신앙인의 목표로서 내적 치유와 돌봄을 통해 손상된 인격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71]

4) 신앙요소의 활용

(1) 기도

목회 상담의 요소 중 기도의 필요성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붙드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데서 오는 내적 평안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확신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셋째,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원하시는데 그 중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가 자신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다.

기도는 일반 심리 치료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목회 상담에서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용되는 독특한 신앙 치료 방법이다.

목회 상담은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신앙적인 방법, 특히 기도에 그 관심과 주의를 쏟아야 하며 그것이 상담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

[70]박명수, “19세기 후반의 웨슬레안 성결운동과 감리교회(1)”, *활천 497호*, April 1995, 90-96.

[71]이건, “성결의 대사도 존 웨슬레를 추억함”, *활천 131호*, 1933. 11-14.

기도는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과 인간간의 친밀감을 전제로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72]

그러므로 기도의 근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확신에서 비롯된다. 대개 상담 현장에서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담자가 겪는 극도의 불안감의 해소 또는 그것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한다. 기도는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며 불안의 문제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Adams는 어떤 신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피력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통해 죄책감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며, 고백이란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인데, 이렇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가 심신에 미치는 억압과 불안의 악 영향에서 해방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73]

(2) 성경

목회 상담에서 성경 활용이 학문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36년 의사인 Richard C. Cabot과 목사인 Russell L. Dicks가 The Art of Ministering to the Sick라는 책을 출간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Adams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에서 성경을 활용해

[72]정학봉, *기독교 기본신앙* (서울: 요단출판사, 1976) 162.
[73]Ibid., 188.

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성경에 위배된 모든 상담 원리나 학설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성경에 합당치 않은 상담 상황은 없다고 전제하고 성경을 모든 신앙과 인간 행동의 오류없는 표준임을 인정하여 성경만이 진정한 상담의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그 권위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목회 상담자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내담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평안함을 더해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내담자의 삶에 성경을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 그들이 성경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74]
불안과 근심의 억제와 감소에는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용서와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렇게 내담자가 성경의 교훈을 접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둘 때 심리적으로 변화된 새사람이 되는 것이며 내담자의 비극적 인생관이나 잘못된 삶의 철학을 수정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관과 삶의 철학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근본적으로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심리 치료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충분히 얻게 하는 것이다.

(3) 성령

심방을 통한 목회상담에서 문제의 해결은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성령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상담을 역동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복음주의적 목회 상담에서는 인위적이며 인본적인 상담기술이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성령께서 중심이 되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

---

[74]Norman H. Wright, *Crisis Counseling* (San Bernadino, CA: Here's Life, 1986), 222. 복음주의 실천학회: *복음주의 실천신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220.에서 재인용

David A. Seamands에 따르면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열어 그 껍데기 층을 벗겨냄으로써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 주신다고 주장했다.[75]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해소시켜 주시며 치료적 역할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협조하는 것뿐이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기 상담 현장에 나타나 내담자의 문제를 바로 인식, 분석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목회는 개인을 알고 가족을 아는 관계, 또 목회자를 알고 그의 가르침을 아는 관계형성이다. 목회적 돌봄인 심방외에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해 할 수 없고 또한 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 교인들이 사는 세속적인 영역이나 영적인 영역의 세계로 들어갈 길이 없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는 거리를 둔 메마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76]

따라서 성도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목회상담을 통한 접근은 목회자와 성도, 전도 대상자간에 유익을 줄 것이다.

5) 목회 상담의 단계와 과제

목회 상담은 다음의 세 단계를 갖는다. 만나기(encounter), 맞물리기(engagement), 그리고 끝내기(disengagement)의 단계이다.
일반 상담과 달리 목회 상담은 과제 지향적 언어보다는 관계지향적 언어를 사용한

[75]David A. Seamands, *Healing of Memories* (Wheaton, IL: Victor, 1985), 27.

[76]한국인터넷신학대학, “한국교회 목회심방의 문제점과 개선," http://www. theology.ac.kr/institute/data-coop/한국교회 목회심방의 문제점과 개선.txt (accessed November 12, 2011).

다.

관계적 언어는 본질적으로 상담경험의 인격적 본질을 반영한다. 상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무엇이다. 기독교의 영혼 돌봄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또는 기술적인 상담일 수 없다. 오히려, 더불어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만남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목회상담의 단계와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만나기 단계 : ① 얼굴 익히기와 한계 설정하기
② 핵짐적 관심과 관련된 역사 찾기
③ 목회 진단 수행하기
④ 서로 합의된 상담 초점에 이르기

(2) 맞물리기 단계 : ① 문제의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국면을 탐구하기
② 대처와 변화를 위한 자원들을 확보하기

(3) 끝내기 : ① 진행평가와 남은 관심 측정하기
② 위탁준비하기(필요하다면)
③ 상담끝내기 [77]

만나기 단계는 목회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첫 번째 만남에 해당한다. 이 시점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개인적인 접촉을 형성하고, 상담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하며, 내담자의 중심적 관심에 친밀해지고 목회 진단을 수행하고, 다음 회기를 위하여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초점을 개발하는 단계를 말한다.

---

[77]Reisig, *전략적 목회상담*, 78.

맞물리기 단계는 상담과정의 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목회 상담자가 내담자와 더불어 보다 깊은 관계의 공통점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처와 변화를 위해 새로운 관점과 전략의 개발, 문제 영역과 관계된 내담자의 느낌, 생각, 행동 유형을 탐구하는 것을 수반한다.
맞물리기 단계의 주요과제들은 대처나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관심과 새로운 관점들과 전략들을 개발하는 것과 연계된 내담자의 느낌, 생각, 그리고 행동유형을 탐구하는 것이다.

끝내기 단계에서는 과정 평가,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도움을 위하여 위탁하는 것과, 그리고 상담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상담관계의 끝맺음은 목회 상담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나 맞물리기가 아니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이루어 진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하여 절망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독특하고 풍성한 보상이 주어지는 기회이다.
그러나 목회 상담자는 설교자가 종종 돌짝 밭이나 굳은 땅에 씨를 흩뿌리는 식으로 전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나의 씨앗을 심는 기회를 가진 자들이다.

땅의 조건을 알기 때문에 그는 씨가 빨리 바람에 날려 없어지지 않도록 고도록 개인적인 방법으로 씨를 씸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부드럽게 물을 주고,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 상담이 갖는 고유한 기회이다.[78]
그런 점에서 목회 상담은 목회사역의 중심에서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78]Ibid., 115.

2. 목회 상담의 역사

1) 구약

(1) 율법을 통한 영혼의 돌봄

유대기독교 전통만큼 인간의 고뇌와 한계 정황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 신조시스템도 드물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땀 흘려 일하는 고통'과 '아이 낳는 해산의 수고'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결과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그 뜻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택함 받음과 구원의 축복의 약속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목적에 근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블라우는(Johannes Blauw)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79
사람의 영혼에 대한 보살핌과 치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는데 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 전통에서는 제의와 율법의 준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대신앙의 전통과 그에 잇닿아진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바로 신조 시스템 자체가 영혼의 돌봄과 핵심을 이룬다.

또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의 예배나 개인적 경건의 삶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한 감사 및 찬양을 통하여 실제로 백성들의 삶에서

---

[79]Johannes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London: Luther Worth Press, 1962), 1.

이뤄지는 영혼에 대한 치유와 인도와 위로의 측면이다.

>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때 까지니이까(시 6:2-3)

시편의 수많은 참회와 탄식의 시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고백함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혜와 안도감을 얻는 시인들을 만난다. 또한 이들 시인들은 때로는 탄원하고 때로는 항변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한 확신을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삶의 문제적 정황이나 일상을 이겨나가고 이어가는 힘을 얻는다.
삶을 살아가는 지표와 행동의 강령이 되는 율법이 가지는 영혼의 돌봄에 관한 측면은 제의와 더불어 두 축의 다른 하나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감독이나 관심 그리고 국가가 그의 백성들에게 가지는 관심의 개념은 용어의 성경적인 용법을 보아도 대단히 중요하다. 거짓된 모든 신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해 아시고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이다.[80]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2) 제사장과 예언자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 전통의 제사장들은 원초적인 의미에서의 영혼의 의사들이였다. 이들은 제의적 기능만을 통해서 이영혼의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백성들과 통치자들의 상담자요 의사, 교사이기도 했다(레 10:10-11).

[80]Reisig, *성공적인 목회 사역*, 97.

영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로서의 예언자의 위치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예언자가 삶을 선견하는 즉 역사를 미리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었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이나 엘리야 등의 역할이 치리자의 상담자이거나 비판적 인도자인 것을 쉽게 발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언자들의 영혼 돌봄의 측면은 하나님은 곧 구원자시오, 시련과 고통과 패배로부터 영혼과 육신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선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예: 사 40-55장)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곧 인간의 영혼과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자각의 출발이 있게 되는데 영혼 돌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각은 한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일일이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에 유대전통의 놀라운 영혼 돌봄에 관한 특성이 엿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위에 오셔서 영혼을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전통의 또 다른 전범이 된다.[81]

(3) 신접한 자와 현인들

구약 성서의 시대적·사회적배경이 샤머니즘의 영혼 돌봄과 중첩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구약, 신명기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율법,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영혼의 돌봄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비하거나 주술적인 방식으로 영혼의 돌봄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구약에서는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상담자 내지는 삶의 인도자를 볼 수 있다(예레미아 18:18). 오늘날 지혜문서라고 이름 붙인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책에 나오는 인생의 교사로서의 지혜자들이 구약 시대에 활동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지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영혼의 고통에 대하여 위로하고 설명하며 그들을 치유하고 인도하는 오늘의 목회상담자의 역할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현대의 일반상담이나 목회상담이 구약시대의 지혜문학에서

[81]Reisig, *목회상담입문*, 88.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다.

(4) 랍비와 랍비문학들

위에서 말한 사람들 외에 에스라처럼 ‘학사’, ‘서기관’, ‘율법학자’라고 불리던 자들이 그리스도 탄생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진 뒤로 ‘랍비’로 불리고, 이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사회 활동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랍비들이 유대인들의 삶속에서 영혼의 인도나 돌봄을 제공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미쉬나』나 『탈무드』를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수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려는 답들이 제공되어 있다. 지혜문학처럼 삶의 정황과 이에 대한 경험과 합리에 바탕한 지혜로운 대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롤만(E. A. Grollman)은 이 유대적 전통의 영혼의 돌봄과 치유가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원죄 아래 있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낙관적이고 선한 존재로 규정하며, 피안적이기 보다는 차안적이고, 성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대하며,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배움과 전문적 직업 추구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82]

2) 신약

(1) 예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은 목자라는 멸시받는 직종을 택하시어 그 문화 속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건지시려는 구속 사역의 섭리를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옛 관습에

[82]E. Grollman, "Jewish Care and Counseling", *Dictionary of Pastroal Care and Counseling*

구애되지 않고 '선한 목자'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만민을 구출하시려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선한 목자라는 말씀에서 영적돌봄, 보호, 사랑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자상을 연상해 볼 수 있다. 참된 목회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된 희생적 목회가 되는 것이다.[83]

또한 복음서의 1/5은 예수의 치유사역에 연관한 것이다. 이런 치유들은 신체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인 단순한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과 소외, 고통과 한계적 상황도 포함 한다면 복음서는 그 전부가 바로 이런 영혼과 돌봄의 치유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의 치유사역이 영혼 돌봄의 신조적 시스템 및 실제적 방법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① 속죄와 용서

유대교적 영혼 돌봄의 신조적 특징이 하나님께 대한 '죄와 그에 대한 속죄 및 보상' 으로서의 제의에 있다면, 예수의 영혼 돌봄의 기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에 대한 수용적 반응' 이다. 그리고 예수의 치유 사역들은 이에 대한 확증들이다. 따라서 예수로부터 비롯된 제의는 속죄의 제의이기보다는 용서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예배이다. 기본적인 영혼 돌봄의 신조는 '용서와 수용' 이다. 이 경우 예수의 죽음은 용서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모든 치유사역들은 선행되는 조건 없이, 다만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것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 는 사실들로 이뤄져 있다. 이 사실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는 제의' 로부터의 만남 혹은 '대화' 로 그 치유적 양태가 변한다는 데에 있다.

[83]방지형, *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쿰란출판사, 1994), 58.

이제 성소, 제단보다는 각 개인의 영혼과 믿음이 주요한 돌봄의 '장'(locus)이 된다. 돌봄의 형태가 성소로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향해 찾아 나가는 형태가 된다.

이 돌봄은 어떤 성직자의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신앙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것이 된다.

② 만남과 대화

내용상 복음서의 절반은 예수께서 사람들과 개개인을 만나신 것이다. 그 다른 절반은 예수께서 사람들과 개개인을 만나신 것이다. 즉 예수의 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곧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나아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결단을 초래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현대상담'의 시원자로 보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떠나 예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신 것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는 신체와 영혼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특히 마음 혹은 영혼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오늘날의 심신연관적인 질병이나 투병관을 가지셨다는 점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③ 죄 사함, 믿음, 치병

위의 마지막 언급은 예수께서 병든 이들 을 고치실 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믿음에 의한 용서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에 대한 확증이었다. 이는 또한 '네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④ 기도와 영혼 돌봄

예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 있게 일을 행하는 것에 기도의 힘을 강조하신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영혼 돌봄의 전범을 제공하고 계신다.

⑤ 성찬을 통한 치유

식탁을 함께 나눔이 곧 배고픈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절망한 이들을 희망으로 이끄신다는 점에서 예수의 공동식사는 매우 중요한 영혼 돌봄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예수의 사역에서 영혼 돌봄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찾아봄은 기독교의 영혼 돌봄과 치료가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사역에서 기원한다는 신념에 연유하고, 또한 예수께서 하신 어떤 일도 결국에는 영혼의 치유와 연관된다는 선입견에 근거한다.[84]

3) 사도시대

기독교의 시작은 일찍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싹이 트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85]
사도시대의 구분은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시작하여 사도들의 활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예수께서 보이신 돌봄과 치유의 시스템은 제자들의 시대 곧 사도들의 시대로

---

[84]칼 A. 볼츠, *초대교회와 목회,* 박일영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7) 200.

[85]손두환, *기독교회사(1)*,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2), 985.

넘어가면서 보존되기도 하고 정형화되기도 한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는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과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심지어 제사장들 중 몇몇 사람까지 이 공동체에 포함되게 되었다.[86]

치유는 예수 이후의 제자들 시대에도 계속하여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였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처한 시대와 문화와 사회의 관습과 기독교적 가르침을 함께 생각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영혼의 인도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교회 내에서 기독교 신앙과 신조 및 실제 생활에 따라 영혼 돌봄의 길과 양태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보다 두렷한 특징을 지녀가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1) 고백

기독교의 죄에 대한 고침 방식이 보속이나 제의가 아니라, 용서와 대화라면, 제의 대신에 등장하는 의식적 요소가 '고백'일 것임은 매우 분명하다. 고백이란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가장 흔한 삶의 형식이지만 이것이 신앙 및 신앙생활 형태와 연합될 때 그것은 독특한 영혼 돌봄의 길이 된다. 여기서의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공동체에서 이워진 것임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의 전통이 교회의 중요한 영혼 돌봄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고백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직고 될 수 있다.

(2) 기도와 기름 바르기(塗油)

기도가 영혼치유의 한 방편으로 이야기 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그것은 교회의지도자를 청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기도 하였고, 또한

[86] W. 워커, *세계기독교교사*, 박대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27.

‘죄를 고하는 것'과 함께 이뤄진다. 바로 이점에서 단순히 기도가 영혼 차유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질병가지도 ’ 죄의 결과 ‘로 진단하고 이해 한다는 초대교회의 독특한 신조 및 그에 따른 치유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된다.[87] 그렇다면 치유와 돌봄이 어떤 자연적인 사물의 적용이나 약물의 처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완성된다는 신앙적 치유 시스템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예수의 이름’ 과 은사적 치유

고백과 기도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 질병을 치료하거나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이 더욱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예수의 이름’ 이 그 자체로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일상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의례’ 처럼 사용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면과 결부되어, 은사의 방편을 활용하고, 은사를 소유함으로써 신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음도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오늘의 목회상담자가 교회 내에서 일정 부분 고유한 기능과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비견되기 때문이다.

(4) 편지들

사도들은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치리하고 인도하였다. 이런 편지는 멀리 떨어진 교인들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지탱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쓰였다.

4) 초대교회

(1) 고해성사

[87] Reisig, *목회상담학입문*, 96.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사도시대의 예배 형태가 점차로 의례화되어 결국에는 하나의 성사로서 교회내의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사적인 죄의 고백이 공적인 죄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고해성사'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혼 돌봄과 치유의 방편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학자들은 2세기 경부터 세례 후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성찬을 받지 못한 관행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것은 주일 예배의 일부가 되었다.[88]

초대교회에서 고해가 일종의 영혼에 박힌 독이나 아픔을 제거하여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온전하게 하는 약 같은 것으로 까지 생각되고 있었고, 일종의 성례전적 치유방식이요, 영혼의 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느껴졌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으나 '한 번의 세례에 한 번의 고해성사'라는 원칙이 오래 지켜왔으나 6세기 말 이후에 고해성사가 여러 번 행해질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이 교회의 치리와 영혼 돌봄의 면에서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뤄진 고해성사의 일상화가 영혼의 돌봄과 치유면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이는 또한 현대적인 목회상담의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말씀, 성체, 성호, 유물, 성지 등의 등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은 '성호'를 긋는 방식으로 더해지고. 사도들의 옷자락은 성인들의 유물이나 유해로 더욱 다양하게 또 더욱 넓게 확장되어 갔다. 그리고 각 민족이나 시대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십자가 자체가 영혼의 돌봄의 방편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박해를 통해 교회 내에 수많은 순교자나 거룩한 신앙의 증인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공덕을 의지한 영혼의 돌봄 방식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다.

---

[88]John Thomas McNeill,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NY: Harper Collins, 1977), 91.

(3) 위로문학

초대교회 영혼의 돌봄 전통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교회가 희랍-로마 문화로부터 배워온 '위로의 문학'이였다. 즉 박해나 일상적 한계정황에 직면한 교인들에게 교회지도자들은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나 문건들을 저술하였다.[89] 이런 위로 문건들 속에는 구약과 신약 및 기독교 전통의 많은 가르침들이 충만하지만 동시에 희랍-로마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덕목들과 전통속의 많은 가르침과 시례들이 담겨있다.

(4) 사막교부들의 등장과 상담

초대교회는 박해 때문에 교인들을 수난과 순교로부터 지켜나가고 지탱시켜주는 영혼 돌봄의 사역에 힘을 쏟아야 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 나아가 국교가 되자 갑자기 상황은 변전하였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교인들을 세속적 안일로부터 건져내어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 걱정하자 이런 때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사막을 시원으로 수도자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교회역사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영혼 돌봄과 치유의 방식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오늘의 상담방식과 같은 대화의 형태를 갖춘 영혼 돌봄, 거기에 덧붙여 영적인 수련을 통하여 영혼을 단련하고 강화시키는 방식이 수도 운동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었다. 자기의 의식을 살피고 언제나 깨어있어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마음을 기도문이나 하나님께 향함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수도의 방식을 통하여 영혼을 보살피는 고도의 수도방식이 이렇게 기독교의 수도원 전통에 들어왔고, 도한 예수기도 같은 단문기도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방식이 생겨나게 되었다.[90]

---

[89]Reisig, *초대교회와 목회*, 219.

[90]Ibid., 102.

Ⅵ. 연구과제 수행

1. 연구반 운영과 활동

1) 연구반 구성

본 연구자의 연구반의 구성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뉴욕성결교회 성도들로 구성했다.
특별히 전도와 구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징검다리 선교회원과 교회학교의 신앙교육과 어린이 전도 사역에 동역자로 세워진 교육위원회 총무가 동참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본 연구자는 뉴욕성결교회의 사역에 대부분 이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구분 이름	성별	나이	교회직분	전문분야	학 력	기 타
안형태	남	42	안수집사	교육	대학원 졸	Columbia Univ., 현재 Elizabeth Public High School 교감
김사랑	남	52	전 도 사	신학	대학원 재	미주성결신학대학교, 현재 뉴욕성결교회 유아유치부 전도사
이경미	여	52	권 사	회계	대학 졸	자 영 업
방주일	여	50	선 교 사	신학, MBA	대학원 졸	미주성결신학대학교, 현재 뉴욕외항선교회 파송 선교사

표 1. 연구반원 명단

2) 연구과제 수행 계획

본 연구를 위한 기간은 2012년 1월~2012년 12월까지 뉴욕성결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하되,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 한정한다. 또한 불신자들은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 사업체 경영자 및 직장인으로 대상을 정한다.

특별히 2012년도에는 교구 중심의 구역제도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 재 탄생해 각 교구의 교구장(부교역자)들은 하나의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당회 결의가 있었다. 이 작은교회 제도는 책임 있는 교회의 운영과 성도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쉽게 알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 구역 한 가정 전도'의 슬로건을 걸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함께 전진하는 기회가 된다.

교구	Small Church	담당 교역자
1교구	평강 교회	주환준
2교구	사랑나눔 교회	이성수
3교구	In Church	김대현
4교구	행복한 우리교회	김충만

표2. 교구이름에서 변경된 교회 이름

본 연구에는 심방과 전도에 뉴욕성결교회 교역자와 징검다리선교회 팀, 섬김우리 선교회 팀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뉴욕성결교회는 '전도(선교)비전 2015'를 계획하여 '153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100가정의 십일조 생활, 500명 성도 출석, 30명의 선교사 파송 및 지원이다.

특별히 국내 전도위원회는 2012년도 목표를 ‘전도(선교)비전 2015를 주심에 감사하며 153운동을 통해 내적으로 500명의 성도출석을 위한 목표와 실천이 교회와 가정과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영적으로 깨달아 모든 성도가 결단하고 행함으로 영적, 물적, 축복에 참여하자!’로 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선교회장단 위로모임과 전도 훈련 및 특별 강사를 초청하여 전도에 관한 영성을 키우며, 기도운동을 장려하여 구역 및 전교인이 함께 산상기도에 동참하고, 제5회 New Hope Sunday 계획했다.

이 일에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선교회가 본 연구에 함께 동참하는 징검다리 선교회와 섬김우리 선교회 이다.

징검다리선교회는 2008년 NHS를 위해서 조직 되었으며, 창단 초기 이름은 ‘전도특공대’였다. 처음에는 바자회를 위해서 만두와 김밥을 빚어 한인 사업체를 방문하여 선교비를 마련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한인사업체 심방 및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전도 특공대’가 결성이 된 것이다.

당시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이 원색적인 부분이 있어서 명칭을 ‘징검다리 선교회’로 바꾸게 되었는데, 징검다리라는 말의 뜻은 ‘중간에서 양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비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과 영생을 얻기 위해 돕는 일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기 위함이었다.
징검다리선교회는 매월 1회씩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한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홍보와 초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섬기우리 선교회 역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매월 Nursing Home을 방문하여, 찬양과 말씀의 선포로 예배가 있은 후 한국음식을 접대하고 있다.
심신이 연로하고 약해져 계신 분들에게 한 달에 한번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특별히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인종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함께 먹을 때는 예수그리스도의 식탁의 교제가 연상되기도 한다.

그림 3. 복음 전도를 위해 조직된 선교회91

91www.nykec.org (accessed January 24, 2013)

본 연구자는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징검다리 선교회와 섬기우리 선교회와 함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 사업체와 병원을 방문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심방은 가정의 방문 보다는 개방하기 쉬운 운영 사업체장이 주로 될 것이며, 사업체 방문은 신자와 비기독교인 모두 해당 된다.

3) 연구과제 수행 일정

본 연구반의 운영은 1월~12월까지 총 12개월간으로 하며, 1분기(1~3월)에는 준비기간으로서 기존 징검다리 선교회원들과 함께 사업체 방문 전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체 방문 중 시정할 점, 주의 할 점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또한 각 사업장 마다 환경과 특색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전도를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2012년 징검다리선교회원들을 새로 모집하고, 뉴욕성결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직종 파악과 사업장의 위치 등을 파악해 사업체 심방과 전도시 방문하도록 준비한다.

2분기(4월~6월)에는 본 교회의 교단인 성결교회의 태동에 대해 세미나를 열어 전도중심으로 세워진 성결교회에 대해 알고, 그 열정을 전도의 현장으로 이어가도록 한다.

3분기(7월~9월)에는 심방과 전도에 중점을 두고, 교회에서 실시되는 가을대심방기간과 함께 징검다리 선교회가 동참하도록 한다. 또한 뉴욕성결교회 성도들에게는 직장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묵상지를 발간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4분기(10월~12월)에는 본 교회의 총력전도주일 New Hope Sunday 가 있는 만큼,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한다. 이에 징검다리 선교회는 각 사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NHS를 홍보하고, 초청주일에 함께 초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전도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마무리 단계로서 비기독교인들의 심방과 전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업체 내에서 경건 훈련 평가를 조사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다음페이지의 표 3과 같다.

<table>
<tr><th colspan="2">기간
(Jan.~Dec.,
2012)</th><th>연구활동</th><th>연구조사활동</th><th>비고/참고</th></tr>
<tr><td rowspan="3">준비
및
구성</td><td>1월</td><td>연구 설명회
및
설문 조사</td><td>1. 교구를 Small Church로 전환
2. 사업체 심방에 대한 연구 설명
3. 교인들의 직업 분석 및 사업체 위치 파악</td><td>프리젠테이션,
개인 접촉</td></tr>
<tr><td>2월</td><td>지역 탐방
및
설문조사</td><td>1. 스태튼 아일랜드 내 한인 업소 파악
(비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2. 설문조사:
사업체/직장 내 말씀묵상 가능 여부</td><td>방문 조사</td></tr>
<tr><td>3월</td><td>심방/전도팀
구성 및
교육,
개인심방실시</td><td>1. 심방전도 사역 팀(징검다리선교회) 모집 및 훈련
(참고도서: 복음전도의 성경적 모델)
2. 개인심방 실시(Small Church)</td><td>이론교육
및
실제</td></tr>
<tr><td rowspan="3">훈련
및
적용</td><td>4월</td><td>세미나 1,
4월
심방실시</td><td>1. 전도폭발 훈련과 접촉방법
2. 징검다리 선교회와의 한인 사업체 심방 실시(신자, 불신자 모두)</td><td>프리젠테이션,
심방전도1차</td></tr>
<tr><td>5월</td><td>세미나 2,
5월
심방실시,
개인심방실시</td><td>1. 성결교회의 태동과 전도법에 대해
2. 징검다리 선교회와의 한인 사업체 심방 실시(신자, 불신자 모두)</td><td>프리젠테이션
심방전도2차</td></tr>
<tr><td>6월</td><td>세미나 3,
6월
심방실시,
개인심방실시</td><td>1. 효과적인 사업체 전도 전략 연구
2. 징검다리 선교회와 한인 사업체 심방 실시(신자, 불신자 모두)</td><td>프리젠테이션
심방전도3차</td></tr>
</table>

표 3. 연구과제 수행 일정 계획표

훈 련 적용 및 평가	7월	경건훈련 교안 제작	1. 직장(사업체) 내 경건의 시간 교안 제작	
	8월	경건훈련 적 용 8월 심방실시, 개인심방실시	1. 직장(사업체) 내 경건의 시간 적용 2. 징검다리 선교회와 한인 사업체 심방 실시(신자, 불신자 모두)	심방전도4차
	9월	9월 심방실시 개인심방실시	1. 징검다리 선교회와 한인 사업체 심방 실시(신자, 불신자 모두)	심방전도5차
	10월	10월 심방실시, 총동원 주일, 개인심방실시	NEW HOPE SUNDAY 총동원 주일 및 총력전도주일, (관계된 한인 모두를 교회로 초청)	초청 주일 심방전도6차
	11월	설문조사	1. 심방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 2. 심방을 통한 사업체내에서 영성 변화 조사 3. 심방전도에 대한 결과 조사	
	12월	분석 및 평가	심방을 통한 사업체내에서의 경건훈련 평가 / 수정 및 보완점 제시, 사업체 방문 전도의 평가와 보완점.	

표 3. (Cont'd)

2. 연구과제 수행 내용.

1) 교인들의 직업 분석 및 사업체 심방의 가능 여부 조사

미국 이민 역사에서 한국인들은 근면과 성실함으로 미국 문화와 사회에 순응하면서 뛰어난 적응력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 왔다.
비록 주류사회에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데는 이방인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본 뉴욕성결교회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심방이 가능한 분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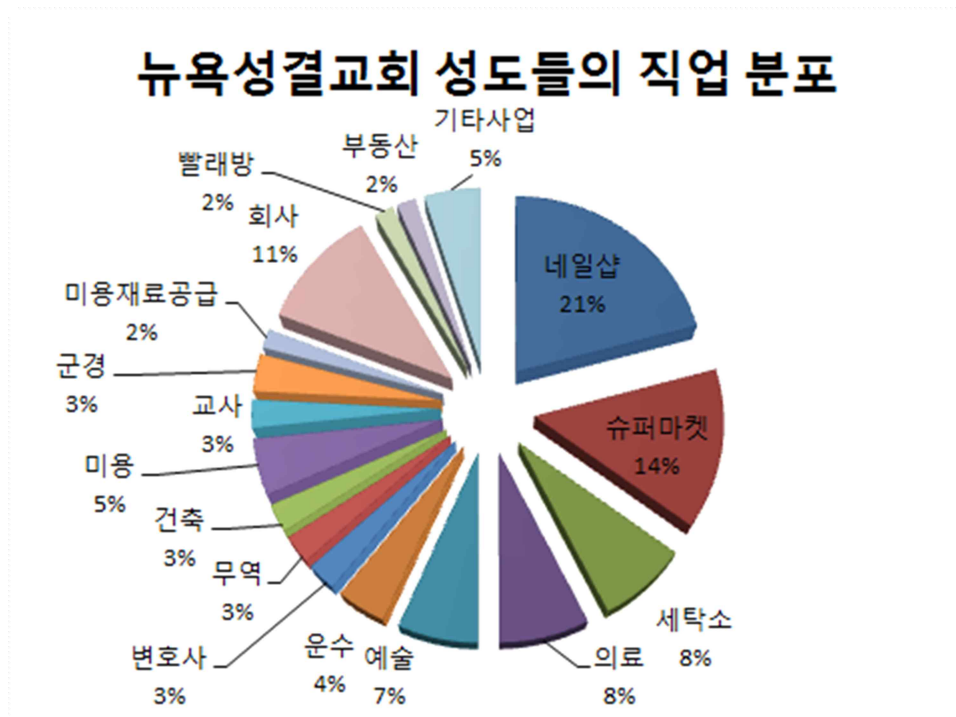
그림 4. 뉴욕성결교회 성도들의 직업분포 그래프

조사에 의하면 현재 네일 샵과 수퍼마켓, 세탁소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약 70%의 성도들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 심방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조사는 사업체 방문 심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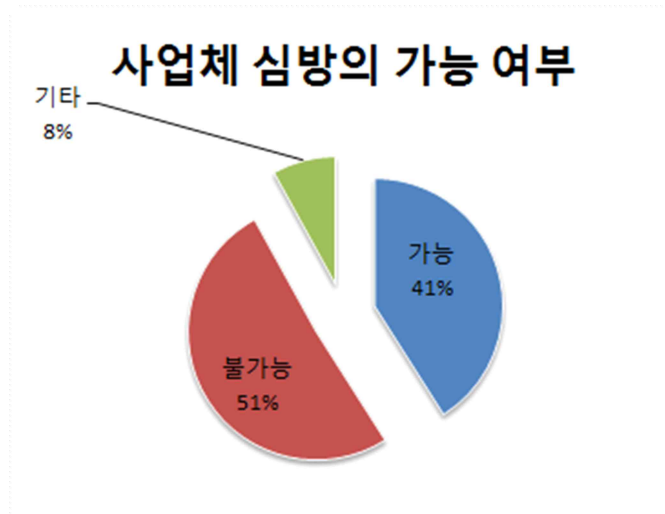
그림 5. 사업체 심방 가능 여부

사업체 심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반반의 결과가 나타났다.

특별히 불가능한 이유에서는 종업원일 경우, 배우자 중 한쪽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 거리상의 이유, 출장 또는 외근이 잦은 경우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직장대신 집으로 오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시간약속이 되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징검다리 선교회는 이런 지속적인 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체 전도와 심방에 더욱 힘을 다 할 것이다.

2) 징검다리 선교회의 훈련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여 한 팀으로 구성된 성도들과 함께 처음 훈련

은 ‘복음전도의 성경적 모델’[92]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생활은 매우 열심히 하지만 성경적 지식이나 전도의 방법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음전도의 성경적모델’ 이라는 책을 가지고 특별히 징검다리 선교회원들에게 복음전도의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행한 전도행적을 따라가며 9가지 복음전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는지,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전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성경적 접근을 통해 복음전도의 본질을 살폈고,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과 전도의 사례를 연구하며 영혼 구원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3) 세미나 1, 2, 3차

(1) 1차 : 전도폭발 훈련 중 접촉점 마련하기

본 연구자는 전도폭발 2단계를 수료하였으므로, 1차 세미나에서는 본 연구반원들과 징검다리 선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십 년간 전도의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전도폭발 훈련의 내용 중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업체 방문 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접촉점을 마련하여 영적 상태 및 친구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 실시하였다. 전도폭발 훈련에 있어서 서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주변 관찰을 통해서 대화의 접촉점을 마련하면서 먼저 말하기 보다는 경청

---

[92]홍성철, *현대인을 위한 복음전도의 성경적 모델*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심방 대상자와 접촉점을 마련하여 대화의 길을 열고 경청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권리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화 중 교회에 관한 내용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전도자의 간증을 통한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 훈련은 본 징검다리 선교회에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요저녁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2) 2차: 성결교회의 태동과 전도법에 대해

본 논문의 연구자는 성결교회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3대째 목회의 가업을 잇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 최초의 자생교단인 성결교회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크다.
무엇보다 성결교회는 교회의 설립이 처음 목적이 아니었고, 동경성서학원에서 수학하던 김상준과 정빈에 의해 한국에서 복음전도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모태가 되었다. 따라서 성결교회는 전도와 영혼구원이 제일의 목적이었고 선진들의 신앙을 본 받아서 후대에도 이 전도의 열정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여 성결교회의 설립이유와 전도방법, 그리고 현시대에 맞는 전도법등을 징검다리 선교회원들에게 알리는 전도훈련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체를 방문하고, 전도하는 일은 성결교회의 신앙적 가치와 유산을 이어받아 유지해가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가지고 전도표제를 삼고 있다.
징검다리 선교회원들은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함께 신앙의 가치를 이어가는데

힘쓰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현대의 전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관계형성을 통한 전도가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 방문시 먼저 할 일은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친구를 만들고 그 후에 성결의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법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3) 3차: 효과적인 사업체 전도 전략 연구

1차, 2차 세미나는 이론에 중점을 둔 반면 3차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반원들과 함께 토의하며 진행 되었다.
사업체 방문시 고려해야 할 부분, 방문시 느낌 등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방문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체 방문 요일은 주말이 가까워 오는 목요일 보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더 낫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 대상자가 미국 현지인들이므로, 그들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횟수는 주말이 가까워 올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한가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전도 대상자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길 수 있고, 진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② 전도대상자가 손님을 대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님에게 실례의 말을 전하며, 뉴욕성결교회에서 왔음을 알려주도록 한다.

③ 본 징검다리 선교회가 방문 했을 때, 전도대상자가 시선을 피하거

나 자리를 옮긴다면 교회에서 다녀감을 분명히 밝히고 다음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오라.

④ 전도대상자와 대화를 시작할 때 한 달 동안의 안부를 묻거나, 이슈가 되었던 일들로 접촉점을 마련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적 대화로 이끌어 가라.

⑤ 처음 방문한 곳에 있는 대상자가 '이미신자' 이면, 본 교회의 행사 홍보만 하고 돌아 온다. 또한 기도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 할 수 있다.

⑥ 전도 대상자의 더 이상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는 '저희가 방문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고 다음에 또 방문한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는 포기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접촉점을 잘 마련하고 준비하여서 다시 방문하도록 한다.

⑦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행사들이 있을 때는 적극 홍보 하도록 한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⑧ 전도 대상자의 사업장에서 구입할 물건이 있으면 방문시 구입하고, 거래를 자주 하도록 하라.

⑨ 교회에서 방문시 준비한 선물은 전도 대상자 외에도 함께 일하는 종업원 것 까지 준비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⑩ 출발 전에는 전도대상자와 반드시 나누어야 할 말을 몇 가지 정하고 떠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육체의 고향도 있지만 영적 고향도 있습니다. 이제 오셔야지요' 라든가 '이민사회에서 한민족으로써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

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등의 말을 준비하여 대화하도록 한다.

⑪ 사업장이 매우 바쁠 경우에는 준비한 선물과 인사로만 마무리 하고 돌아온다.

⑫ 점심시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하여 그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하루의 일과 중 잠시 쉬며 식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

⑬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했다가 반드시 담임목사님께 알리고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4) 직장 내 경건의 시간 묵상지 발행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24시간 중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있게 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 필요하다. 짧지만 발행되는 묵상지를 통해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본 묵상지를 월4회 발행 하였다.

<table>
<tr><th colspan="2">직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2012. 12월 1주></th></tr>
<tr><td>본문</td><td>“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18)

“I pray also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Ephesians 1:18)</td></tr>
</table>

적용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눈을 떠서 볼 때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 있을 때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	1.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기도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결심	
New York Korean Evangelical Church 뉴욕성결교회 징검다리 선교회 발행	

5) N.H.S 초청행사를 위한 특별 전도 및 준비내용

본 교회는 2008년부터 전교인 총력전도주일(총동원 주일)의 이름을 New Hope Sunday로 정하고 2012년 제5회를 맞이했다.
뉴욕성결교회 ‘총동원 전도주일(New Hope Sunday)'이란 교회의 모든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정한 날에 온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여 영혼구원이라는 지상최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선교의 큰 사명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총동원 전도는 단순히 일회적으로 사람을 모두 끌어모아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중전도 집회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전도 또한 알곡 중심의 개인전도, 관계전도로 전도행사를 치르게 된다.

뉴욕성결교회의 총동원 전도(New Hope Sunday)는 바로 이 알곡중심의 개인관계전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 주일 35일 전 에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면서 알곡전도는 시작이 된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교회 전체 적으로 걷으며 아울러 제출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구역 조직과 각 선교회 중심으로 독려하고 격려하여 모두 전도할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가 올바르고 정확 할 때 전도의 성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알곡전도는 방문과 관계형성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 등으로 이어져서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알곡전도는 일상적으로 한 번쯤 교회로 불신자를 초청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1 년 365 일 전도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하여 온 교인이 불신자를 초청하고 이는 교구별, 구역별로 계속해서 관리되고 각 개인이 알곡으로 전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도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는 교인들이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흔히들 총동원 전도라는 용어에 있어서의 전통적 개념의 혼동 때문에 우리가 실시하려는 총동원 전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용어에서 주는 일반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다. 홈커밍데이나 지역주민 초청, 일회성 전도 집회 , 선물을 통한 대중 유혹등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뉴욕성결교회에서 실행코저 하는 총동원 전도는 전도의 모든 방법을 적용하고 도입하며 그것이 효과적이며 능력있게 작용하도록 연구하고 접합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알곡 중심의 개인전도 라고 할 수 있다. 알곡중심의 개인전도라는 것은 개인이 대상자에 많은 접촉과 섬김으로 그들을 교회에 열매맺는 알곡중심의 전도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델로 제시하는 주안장로교회(나겸일 목사시무)에서는 총동원 전도주일을 1년 2회 실시하고, 이러한 알

곡중심의 개인전도로 한달에 40-50명씩의 새로운 전도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전도를 위해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매번 단순히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 치중하는 선물제공만이 주안장로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가 아니다.

전도에 있어서 선물은 한국인의 정서와 잔치 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도의 접촉점임과 동시에 전도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선물은 마음을 열며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또한 전도 받는 불신자들에게 자신이 인격적으로나 친분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존중 받는다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방문을 할 경우에 소용되는 전도품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며, 방문하여 전도 하여야 하는 실물의 전도 도구이다. 전도품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의 접촉점으로서의 선물 전도는 더 나아가서 불신자를 초청하는 총동원 전도 당일의 훌륭한 도구 일 수 있다. 또한 총동원주일에 오는 초청자들에게는 특별선물을 증정하고 그 선물을 전도기간동안 광고하기도 한다. 총동원 주일 선물은 전도 용품으로서의 물건이 아니라 당일 초청 된 사람들에게 주는 차등화 된 것을 말한다. 이 선물은 전도용 선물이 아니라 초청용 선물이다. 따라서 선물은 차이가 난다. 초청용 선물은 받는 사람의 욕구(NEED)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자신이 매우 대접받는 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초청될 불신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접할 수 있는 좋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총동원주일을 통해 새로운 결신자를 얻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년 거듭되는 총동원 전도에 있어서 이는 전도의 접촉점과 초청의 동인으로서 매우 훌륭히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효과적인 전도집회를 갖는 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 주일마다 여러 가지 전도방법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효과적이라 검증된 전도 방법을 단순하게 복사하여 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에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면 이슬비 전도, 사영리 전도, 전도폭발, 새생명전도, 등등 여러가지 전도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총동원 전도에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총동원 전도는 전도의 모든 방법을 망라한 총체적인 전도를 말한다. 따라서 뉴욕성결교회 총동원 전도는 모든 전도의 방법들을 통합, 발전, 적용시킨 전도의 실천적인 핵심요소를 연구하고 이에 맞게 모든 것을 적용해야한다.

전도는 성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함께 모여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부흥 사경회를 개최하고, 교구별로, 구역별로 전도대를 발족하고 온 교회의 부서와 기관들이 총동원 전도를 위해 하나가 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총동원 전도는 외적으로는 전도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내적으로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더욱 바르게 세우는 각성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전도와 영적 부흥운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적 부흥운동 없는 전도운동은 울리는 꽹과리 밖에 되지 못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난 다음 120 명의 성도들이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전도는 사람의 기교와 경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채우시는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존심을 극복하고, 장애와 거절을 넘어 서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까지 역사해야 한다. 전도를 하기에 앞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도운동과 영적 부흥 운동은 하나이다. 총동원 전도를 단순한 전도의 한 이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온 교회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영적 훈련인 것이다.

총동원 전도는 실질적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의미와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다. 총동원은 전교인을 대상

으로 집중적인 전도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이다.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 총동원을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 모든 교인들이전도훈련을 받고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여러 간증자들을 모시고 와서 이론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들어보고 전도방법론과 전도를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서 모든 교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보다 모든 교인들이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인들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교인은 그리많지 않다. 그만큼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는 모든 교인들에게 전도해야한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대상을 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준비해 주는 전도 방법에 따라 찾아가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생활전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는 모든 교인들에게 전도하고, 전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훈련임을 기억해야 한다.
총동원 전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총동원 전도를 통해 기대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란 분명한 비전이요, 분명한 꿈인 것이다.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통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통해 어떤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비전과 꿈, 즉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게 되면, 이러

한 효과들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총동원 전도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지침인 "영혼 구원의 열정"을 이 기간에 교인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영혼구원, 생명구원에 있다. 그리고 이총동원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궁극적 목적이 우리교회를 통해 이루러 지기를 원한다는 데 있다. 즉,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주변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공유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영혼구원을 열정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전도집중교회로의 체질개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말에서 그치는 목표가 아니라, 체득되어 지는 목표, 하나님이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전도함으로 인하여 교인들을 전도를 부끄러워 않게 되고, 전도를 낯설게 여기지 않고,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주안장로교회는 총동원 전도를 통해 전도의 붐이 조성되며, 모두가 함께 전도함으로 교인들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총동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고취되기 쉽지 않다.

총동원 전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 총동원 전도를 통해 전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교인들을 보는 것이다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는 것이다 전도를 낯설어 하지 않는 교인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를 통해 교회에 초청된 불신자들이 회심을 결단하고 결신하게 되면 전도한 사람들과 교회는 그 영적 기쁨이 차고도 넘쳐나고 전도자의 신앙이 크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도 생명을 낳는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그 기쁨에 넘쳐 나서 해산의 수고를 잊어버릴 만큼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셨다. 생명을 낳아본 자가 그 기쁨을 알게 되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보고 생명을 길러본 자가 인생의 보람과 사랑의 의미를 그나마 알도록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전도를 하다보면 한 사람의 회심이 결단코 쉽지 않음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 영적인 기쁨과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를 하다보면 한 사람의 회심이 결단코 쉽지 않음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 영적인 기쁨과 교인의 영적 성장은 여기에도 있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다.

복음을 인해 받는 핍박 속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그 속에서 깃든 하나님의 성장을 향한 연단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다. 교인들의 신앙이 실제적이 되고 생동감이 넘쳐나게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려 본 자 가 그 믿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전도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그들을 찾아 가본 자들만이 그 안에 감추인 기쁨을 맛 볼 수 있다. 전도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하찮은 듯 한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고난을 감수한자가 참된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도하면서 부딪치는 비난과 핍박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총동원 전도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의 결신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큰 잔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전도’라고 하는 대명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슈가 통일되면 어떤 구심점이 생긴다. 주안장로교회는 어느 누가 물어도 총동원 전도하는 교회이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주안장로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런데,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 일은 온 교회를 하나로 묶는 다른 어

떤 프로그램이나 일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생명을 낳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인과 부서간의 화합과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사실, 총동원 전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각 부서들이 함께 만나 각자의 사역을 준비하게 되며, 총동원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서로가 익숙해가며 한 교인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서로 알아가게 된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헌신하는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자부감을 갖게 되며, 아! 이분이 그때 함께 만나 사역했던 분이구나 하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총동원 전도주일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잔치날이다. 사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본 교회에 한번 발걸음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번 발을 딛는 것이 힘이 들지만, 한번, 두 번 발을 딛게 되면 자연히 그 교회가 친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매년 2 회씩 실시하는 총동원 전도를 통해 인천에 있는 시민 중 대부분은 한 두 번 이상본 교회에 발을 디뎌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다니기를 결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발을 디뎌봤던 곳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주안 장로교회는 총동원 전도를 20 여년 이상 해오고 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번에 예배시간에 결신을 하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2 번째, 어떤 사람은 3 번째 교회에 오면서 결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총동원 전도의 영향력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사실 불신자들이 선뜻 교회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 총동원 전도는 한번의 전도 초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총동원 전도를 통해 복음에 노출된 영혼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본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매년 계속되는 총동원 전도에 노출된 성도들 역시 전도에 익숙해지면서 계속적인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무분별한 전도가 아닌, 특정한 전도대상자를 정하여 전도하는 것은 매우 실효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총동원 전도를 하면서 큰 변화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도를 하게 될 때, 결국 그 대상자에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피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이번에는 전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남을 전도하기에 앞서 그 가정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청하는 마음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해가 거듭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교회의 문턱으로 나오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가 전도 집중교회로 이끌어져 갈 때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전도, 가정의 복음화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New Hope Sunday는 당일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주일 약 한달 전 선포주일과 행사 후 환영주일로 이루어진다. New Hope Sunday는 초청주일이다.
따라서 선포주일, 초청주일, 환영주일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해오고 정착시키는 일에 매년 총력을 쏟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뉴욕성결교회의 153 부흥운동에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징검다리 선교회는 전도대상자를 태신자로 품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6) 교회학교 어린이 문화축제에 대한 징검다리선교회의 지원

NHS는 장년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이 땅위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따라서 교회학교의 어린이들 역시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교회로 초청하는 NHS를 준비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NHS 어린이 문화축제는 특별히 한국 대형극장 메가 박스에서 상영을 마친 한국 최초 3D 영화 'Little Jacob'을 영화제작사로부터 직접 공수 받아서 상영하게 되었다. NHS 어린이 문화축제의 홍보와 전도는 역시 징검다리 선교회가 함께 동참했다. 각 사업체를 방문하여 티켓을 비치시켜 놓았고,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포스터를 사업장에 게시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주변 어린이들에게 홍보와 선전을 부탁한 결과 어린이 문화축제에 현재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의 3배가 넘는 지역 어린이들이 모이게 되었다.

특별히 이번 영화는 영어버전으로 상영되었기 때문에 교회학교의 어린이들이 타 인종 친구들에게도 적극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결과 여러 명의 타 인종 어린이들이 함께 교회로 인도되는 결과가 있었다.

7) 징검다리 선교회의 사업체 방문 심방 및 전도 일지

2012년 징검다리 선교회의 사업체 방문은 총 10회가 실시 되었다. 그 중 참고자료로 6월에 실시된 일지는 다음과 같다

6/25/2012
방 문 자: 이성수 목사, 김사랑 집사, 이기영 집사
선 물: 수첩&K.F.C 창설자 간증문 나눠드림
특별만남: Nelson Cleaner에 온 손님 중 Frank Leo를 만남. 그가 $50.00헌금
기도제목:엄마-루비아니, 로즈 스피로, 암 치료를 위해
Daughter-남편이 Drug 치유의 역사를 함께 기도 함

1. Amboy Sunshine Nail -조경옥(자녀-보미, 우람)/ 이경희/ 이정옥(sister)
2. Naomi Nail에 최성혜 (디바 홍) 심방 황계남/ 김명희 집사 전도 대상자:디바 홍(최성혜)Choi Jessica(한목련)현재 교회 다니고 있음.
3. Evergreen Cleaners/ 김창선, 이은미, 김가은 (718)967.7060 150N Greaves Lane. S.I. N.Y. 10308
4. Nelson Cleaner / 김창호, 이은미 부부 (우체국 옆)
5. M.Young Nail 월요일 Close -류민할머니-
6. Green Ridge Corn Laundromat 317.9775 최경숙, 최철규/피터(아들)
7. Golden Diner 옆 Laundromat 박상호선생(예수 안 믿음), 일하시는 아주머니 계심 Green Ridge Laudromat 3285-P Richmond Ave. S.I. N.Y. 10312 (718)317.9775
8. Kings Nail -월요일 Close
9. Kims Pink Nails 1445-P Richmond Ave. S.I. N.Y. 10314-1564 (718)495-0561/(718)494.4333 손현주(Lisa) 127 Shiloh St. S.I. N.Y. 10314 (718)551.5678 * 방문과 기도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전달을 부탁하심
10. Happy Fam 강상희 집사의 남편 2500A Victory Blvd. S.I. N.Y. 10314
11. Sunny's Nail -Paul Park의 누나 박순자
12. New Hollywood Cleaners (현) I.C.C.교회 다니심 박노석(남편) 텔렌(딸) 더 이상 방문하지 말 것을 부탁하심.
13. Garden Nails(Paul Park) 박두천(제이슨 아빠) (917)769.6588 3579 Victory Blvd. S.I. N.Y. 10314 (718)370.0200 월요일에 계심, 오랜만에 만남, 지난번 교회오심

14. J&J Page (진남이 엄마)교회 다님 우리교회 자주오심, 방문
15. Dry Cleaning 방문
16. Hom Photo 이상인 집사님 -방문, 징검다리 선교회를 통해 전도 되신 분.
17. Big Laundromat -Woodrow Mall 아주머니 (718)477.0980
18. Woodrow Lobster&Fish Market 655 Roseville Ave. S.I. N.Y. 10309 윤선희,현섭(부부) 진아(딸) 영로(아들)
19. Mohwa Nail Salon - 나평균, 장대희(전도 대상자, 최경선 권사님이 기도중) 극장옆
20. Hollywood Nail 김미숙 집사 방문
21. Lucky Farm(예빈 엄마) 김동하(청년,아르바이트)317-9712
22. New York Taekwon Do Clubs Woodrow Plaza 655-204 Roseville Ave. S.I. N.Y. 10309 (718)966.6696
23. New CoCo Nail 작은 가게 2개를 1개로 크게 확장하심.
24. Cosmic Nail Salon -장경란 방문
25. Page 이용성 집사 가게 -아무도 안계심 방문, 전 징검다리 선교회 회원

표 6. 징검다리 선교회의 사업체 전도 및 심방 일지

3. 시행 이후 평가

1) 의식평가

(1)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평가

오늘날의 직업은 개인적으로는 생계유지의 수단인 동시에 자아실현을 위한 터전이며, 사회적으로는 인간이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이런 경제 소득을 위한 생산적 활동으로만 여겨진다면, 소득에 의해 직업의 귀천을 구분짓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과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생업과 터전임을 깨닫고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정성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심방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면서 또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사업체 내에서도 신앙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업장이 생계유지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소명적 삶을 이어가는 곳임을 알아가고 있다.
실제로 '소명발견세미나'를 통해 부르심의 자리는 교회, 직장, 가정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강조하였고 이 세미나에 참석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원하여 봉사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2) 관계형성을 통한 심방의 거부감 해소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민사회에서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

회에서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현실가운데 전도의 목적을 내세우기 보다는 작고 가벼운 만남들을 통해서 먼저 친구 맺기가 선행되어야 그들의 마음을 열수 있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이 처음 가졌던 거부감이 기다림으로 차츰 변화되고 있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안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경청 후에 목회상담학적인 권면과 위로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위로와 새 힘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평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직장 및 사업체에서의 영적성장 평가

이민생활 가운데 개인의 영성 개발을 위한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공예배 참석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시간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업터와 직장에서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야 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다. 비록 짧은 큐티 묵상지를 발행하지만, 한 주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 직장 안에서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평강을 얻고 있다.

2) 행동 및 실천 평가

(1) 심방 기간에 대한 평가

본 교회는 매월 마지막 월 또는 화요일 정기적으로 징검다리 선교회와 함

께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업소를 방문한다. 또한 특별 대심방 기간을 정하지 않고 Small Church member를 대상으로 영적으로 침체 되어 있는 성도들과 주변의 한인 사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함께 동참하는 연구반원들 역시 주중의 초반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 하였다.

(2) 성도들이 동참하는 심방과 전도에 대한 평가

심방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므로 형식에 의한 찾아감이 아닌 교제와 위로, 친근감 가지고 방문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심방에 대한 부담감을 잊게 하고 자연스러운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방문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심방이 목회자의 몫이 아닌 장로와 권사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당회 장로님들은 세 달에 걸쳐 징검다리 선교회에 동참하여 함께 사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다.

본 교회가 속한 미주성결교회총회 헌법에는 장로와 권사의 직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장로>
>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 심방하며, 도리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 권면한다. 장로는 사회에 대하여도 성직이니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우환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한다.
> <권사>
>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롬12:8)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보며 심방권위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93]

[93]미주성결교회 총회, *미주성결교회 헌법,* (CA: 미주성결교회 총회 출판부, 1973), 35.

또한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심방 가운데 목회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하면서 양쪽의 요구에 응하는 목회의 한 방법[94]으로 성도들의 사업체 안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기도 해드리겠다고 제안하여 수락하시는 분께는 징검다리 선교회와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3) 영적 성장을 위한 사업체 안에서의 말씀 묵상에 대한 평가

사업장에서도 함께 이루어 갈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직장에서 이루는 영적인 성숙 Q.T'를 실시하였다.
심방을 통해서 사업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주일에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세상과 접촉이 되는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3) 구조평가

(1) 교구, 구역제도에서 Small Church로의 전환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성도에 요청에 의한 심방과 정기적 심방(봄-가을 대심방)을 중점으로 실시해 왔다. 또한 심방이라 함은 본 교회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만 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 연구하게 되는 심방은 특수한 이민 사회 안에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돌아보며 신자에게는 목회적 돌봄과 위로를,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형성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심방에 대한 교회구조의 변화를 주게 될

[94]김광집, *"심방과 사귐공동체-한국교회 목회심방의 문제점과 개선"*, 교회갱신대화모임, 1993. 11.

것이다. 따라서 Small Church로의 전환은 더욱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 주변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쉽게 마련될 수 있었다.

(2) 전략적 심방과 전도를 위한 징검다리 선교회 구성과 교육

자신의 은사가 전도와 돌봄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모집하여 징검다리 선교회를 조직한다. 또한 모집된 회원들에게 전도의 이론을 교육하며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상황에 성경적인 답변을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상담학 세미나를 개설하여 전도자가 됨과 동시에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3) 직장과 사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지 발행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임을 깨닫고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지를 발행하여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을 고객들에게 증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매월 4주에 걸쳐 발행하는 묵상지는 성도들에게 직장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4. 연구과제 수행 이후의 변화

1) 연구반원의 개인 변화

(1) 성결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해

본 연구반원들은 미국에 정착하여 교회에 출석한 분도 있고, 또한 어려서부터 성결교회에서 자라나 성결교회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 선진들의 열정이 지금 성결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별히 사중복음으로 전도표제를 삼고, 영혼 구원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온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 이민 사회에서도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성결교회의 전통을 이어 받아 많은 목회자들이 미주로 건너와 '미주성결교회'라는 교단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함께 이 논문에 대해 연구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반원들은 무엇보다 성결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시작과 부흥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 다행히 본 연구반원 중 2명은 '미국성결신학대학교' M. div 과정을 마쳤거나 과정 중이고, 또 다른 1명은 성결가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도의 열정 때문이다. 연구반원들 역시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내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전도와 심방으로 영혼 구원에 열정을 쏟기로 했다. 단순히 볼아 보는 목적이 아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많은 교파가 있지만 성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아비 된 심정의 헤아림이 연구반원들 가운데 더욱 커지고 있다.

(2) 성경적 전도의 이유와 방법의 이해

사업체 방문 전도에 있어서 체계적인 훈련이 없었으나 본 논문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반원과 징검다리 선교회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의 전도 훈련이 실시되었다.
무엇보다 출발하기에 앞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복음전도의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있다.

전도의 이론과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지상명령' 과 '복음전도의 성경적 모델' 이라는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제자화의 목적과 이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인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던 모습을 상세히 살핌으로서 연구반원들이 전도자로 함께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그 누구도 게으르게 할 수 없다.

2) 전도대상자들의 변화

(1) 뉴욕성결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본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뉴욕성결교회는 대외적인 사회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이다. 사회사업활동은 자연스럽게 선교사역으로 연결되었고 인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본 교회에 대한 주변 한인과 지역 커뮤니티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뉴욕성결교회는 병원(Nursing Home)선교를 통해서 매월 셋째 월요일 병원을 찾아가 예배를 인도하고 한국 음식으로 점심을 접대하고 있다. 또한 스태튼 아일랜드 한국전쟁참전용사(Korean War Veterans)에 대해서는 매월 셋째 토요일 낮에 교회 친교실을 대여해 줌으로써 회의와 식사 등의 장소로 사용된다.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에 소속된 한글학교역시 본 교회에서 무료로 장소를 대여하

여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인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본 교회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전도의 현장에서 듣게 되는 본 교회에 대한 인식은 특별한 거부감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칭찬 더불어 매월 징검다리 선교회원들은 전도대상자들을 돌아보면서 관계형성을 유지하며 발전 시켜가고 있다.

(2) 징검다리 선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비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심방과 전도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징검다리 선교회원들은 이런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여 방문하고 있으며 가급적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다. 따라서 사업체 심방의 경우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분주한 시간을 피해야만 그들과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징검다리 선교회는 꾸준히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일상가운데 자녀들의 진로와 사업운영에 있어서 고민이나 걱정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관계형성의 기간을 지나 신뢰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신자들과의 대화 중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응에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가고 싶다’라는 반응과 ‘언제가는 교회에 출석할 것이다’라는 반응으로 점차 변화되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전도의 현장에서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신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많은 위로가 된다는 반응이 나타난다. 사업체 방문 중 손님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서 왔음을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게 된다.

이렇듯 징검다리 선교회는 점차 전도와 심방에 있어서 작은 결실을 맺으며 불신자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3) 교회의 시스템 변화

(1) 함께 동참하는 전도 생활

현재 뉴욕성결교회의 최대 과제 중 한 가지를 말한다면 부흥의 정체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초기성결교회 시대에는 심방은 전적으로 여자들이 몫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불평등도 심하였기에 억눌렸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시키는 일은 '전도부인회'의 몫이었다. 이 전도부인회는 불신자 가정뿐만아니라 신자들의 가정도 심방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올바로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95]

따라서 조직된 징검다리 선교회와 국내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방전도, 사업체 심방전도등을 중점 사역으로 내세우면서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노방전도를 스태튼 아일랜드와 에디슨 뉴저지, 중부 뉴저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역에서는 '한 구역 한 가정 전도'를 목표로 하여 소그룹 활동 가운데 새신자를 초청하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안정기를 지나서 믿음의 성장기를 통과해 다시 부흥의 시기로 돌아가는 'Come Back Revival' 프로젝트를 온 교회성도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

---

[95]박명수, "복음전도관 시대의 여성 사역", *신학과 선교 25집*, 2000, 195-225

다.

이 일에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동참하고 있는데 9명의 당회원들이 징검다리 선교회와 함께 사업체 심방과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성도들도 도전을 받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고 있기에 교회는 점차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2) 로고스 아카데미를 통한 말씀 연구와 영적 성숙

전도에 관한 실천적 요소가 강조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말씀 연구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로고스 아카데미 소그룹 훈련반은 말씀 연구를 통해 성경말씀에 기초를 두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의 회복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게 된다.

로고스 아카데미는 1년에 3차례 8주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부교역자 3명이 각기 다른 은사에 따라 과목을 개설하고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징검다리 선교회원을 중심으로 ‘소명발견세미나’를 개설하여 교육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로고스 아카데미 개설과목	
기간	담당자
	이성수 목사
2월~3월	‘소명발견세미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있는 모든 자리이다)
5월~7월	‘사도행전 연구’ (바울과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한다)
10월~11월	‘전도의 이론과 실제’ (전도폭발 훈련을 기초로 하여 실제 전도의 현장을 경험한다)

표 5. 로고스 아카데미 개설 과목

Ⅶ. 결론

세상은 다원화 되어가고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며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참된 진리를 다시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이 귀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의 지식은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사람들은 경쟁구도 속에서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을 높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배우고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그들을 돌아보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부분을 공감하며 삶의 깊은 문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1) 한인 이민교회를 향한 제언

심방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회의 한 방법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 가서 그들의 말에 경청하며 그들을 이해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위로와 권면을 실시한다.
또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특권을 목회자에게 허락하셨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이민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방의 현실은 개교회 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 심방 사역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경우와 정기적인 심방기간에 맞춰 형식적인 심방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들의 대부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알고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역이기 보다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 목회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부족한 시간을 내게 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으로 눈치 보며 사역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현실이다.

단지 목회자들은 초기 예수님의 심방을 기억하면서 목회를 이어가야한다. 예수님의 심방은 바로 사람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찾아가신 것이다. 그곳은 단순히 만남

의 장소가 아니었고 그들의 어려운 생활환경과 고민과 안타까움에 반응하시면서 고뇌하는 자들의 영혼 깊은 곳을 통찰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하루의 일과를 사업체에서 보내고 있는 성도와 전도대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정심방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업체는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더 많은 곳이 될 수 있다. 분주함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실례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의 갈급한 영혼에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공급하면서 기도로 위로하며, 목회적 상담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한다.

2) 목회 유능성 개발

① 영성(멘토링)

영적지도의 전적인 목적은 한 사람의 삶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 그가 세상에 드러내는 상투적인 몸짓과 태도라는 가면의 배후를 가려내고, 그의 내적인 영적 자유,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진리, 즉 그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일컫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96]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만남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심방 속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를 통해 영적인 멘토로서 성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목회사역에서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될 것이다.

---

[96]Thoma Merton, Spiritual *Direction and Meditation* (Collegeville, Minn: Order of St. Benedict Press, 1960), 16. 키이스 앤더슨, 랜디리스, *영적멘토링,* 김종호 역(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39. 에서 재인용

② 목회상담을 통한 상담자 능력계발

목회는 양떼를 돌보는 일이다. 양들의 사정과 영적상태를 진단하며 그들의 고충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목회 상담적 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 목회상담은 상담의 이론과 기술이 필요로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상담학적 지식을 소양하여 인격적 만남 안에서 치유와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회상담을 통해 인간 심리의 근본적 이해와 세상 문제에 직면하여 돌파할 수 있는 이유를 전하며 내담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목회상담적 이론과 실제는 상담자로서의 내담자를 이해하고 보살피는 참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③ 사업체 심방을 통한 한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과 전도

심방에 관한 논문 연구를 통해 신자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특별히 가정보다 개방하기 쉬운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이민 사회 안에서 많은 한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목회자의 방문에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겠지만 점차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예수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불신자 심방을 통해 전도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연스러운 방문은 사업체간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기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비록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 커뮤니티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스태튼 아

일랜드 내에 있는 한인 업소를 방문하면서 한인들과의 관계형성과 전도의 기회를 동시에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를 통해 장차 목회에 있어서 성령님의 중재 아래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와 위로가 심방사역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참고문헌(Bibliography)

1) 원서

Adams E. Jay.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1970.

Blauw Johannes.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London: Luther Worth Press, 1962.

Bonnell Sutherland John. *Psychology for Pastor and Peopl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8.

Grollman E. "*Jewish Care and Counseling.*" Dictionary of Pastroal Care and Counseling.

Callahan L. Kennon. *Effective Church Leadership,* SanFrancisco: Harper & Row, 1990.

Ellul Jacques. *The Humiliation of the Word, Joyce M. Hanks.* Grand Rapids: Eerdmans, 1985.

Hamilton D. James. *The Ministry of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72.

I. Lars. *Granberg and others,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67.

Jugmann A. Josef. *The Early Liturgy: To the Time of Gregory the Great.*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1959.

McNeill Thomas John.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NY: Harper Collins, 1977.

Merton Thoma. *Spiritual Direction and Meditation.* Collegeville, Minn: Order of St. Benedict Press, 1960.

Packer I. James.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IL: Inter Varsity Press, 1976.

Patton John. *Pastoral Care in Context,*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Seamands, A. David. *Healing of Memories*. Wheaton IL: Viotor, 1985.

Seamands A. David. *Healing of Memories.* Wheaton, IL: Victor, 1985.

Turnbull G. Ralph,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67.

Wimberly P. Edward. *Prayer in Pastoral Counseling.* Louisville: Westminster, 1990.

Wright H. Norman. *Crisis Counseling* . San Bernadino, CA: Here's Life, 1986.

2) 번역서

Adams, E. Jay. 성공적인 목회사역. 정삼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9.

______________ 기독교 상담 교본. 김용순 역, 서울: 보이스사, 1982.

Benner, G. Davie. 전략적 목회 상담. 이정기 역, 부천: 예영 B&P, 2005.

Blackaby, T. Henry & Skinner, L. Kerry. *Called and Accountable.* 소명. 최문정 역, 서울: 두란노, 2002.

Brother Lawrenc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4.

Fraser, A. David. and Campolo, Tony.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강대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1995.

Lawrence Brother.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4.

Mayeroff, Milton. *On Caring*. 이정기 윤영선 역, 부천: 한국상담신학연구소, 2009.

May G. Gerald. *Care of Mind Care of Spirit*. 영적지도와 상담. 노종문 역, 서울: IVP, 2006.

Oden, C. Thomas.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2003.

Sanders, J. Oswald. *Spiritual Leadership.*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Wise, Carol. 영혼을 돌보는 목자. 이승기 역,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8.

볼츠 A. 칼. 초대교회와 목회. 박일영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7.

앤더슨, 키이스. and 리스, 랜디. 영적맨토링. 김종호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오든 토마스.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2004.

워커 W.. 세계기독교교사. 박대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케네디 디 제임스. 국제전도폭발 1단계 훈련생 교재. 서울: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

콜먼 로버트. 오늘의 전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86.

크라인 벨 H.J. 현대목회상담. 박근원 역, 서울: 전망사, 1979.

포드 레이튼.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이숙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89.

3) 국내도서

김은희. 21세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동화, 1999.

권수영, 김필진, 박노권, 박민수, 신명숙, 안숙모, 이관직, 이정기. 목회상담입문. 서울:

도서출판 목회상담, 2007.
뉴욕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뉴욕성결교회 25년사 Mother Church. 서울: 진흥문화사, 2001.

미주성결교회 총회. 미주성결교회 헌법. CA: 미주성결교회 총회 출판부, 1973.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1997.

민경배. 목회신학원론. 서울: 기독교서회, 1973.

박원근. 목회심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방지형. 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쿰란출판사, 1994.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신학연구회. 성결교회 신학개요.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결교회 목회.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결교회 신학.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7.

성결교회 신학연구위원회. 성결교회 목회.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7.
손두환. 기독교회사(1).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2.

안재도. 이민 광야와 코리안 아메리칸. 서울: 쿰란출판사, 2001.

오윤표. 심방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이정기. 목회상담입문. 서울: 도서출판 목회상담, 2007.

정학봉. 기독교 기본신앙. 서울: 요단출판사, 1976.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 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홍성철. The Theology of Evangelism 전도학.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6.
______. 주님의 지상명령 성경적 의미와 적용.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4.
______.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5.
______. 현대인을 위한 복음전도의 성경적 모델.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4) 논문

김광집. "심방과 사귐공동체-한국교회 목회심방의 문제점과 개선", 교회갱신대화모임, 1993. 11

홍성철, "복음전도의 성경적 당위성.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논총, 2004.

5) Website

김용호. 심방과 목회.
http://blog.naver.com/ibs5?Redirect=Log&logNo=80094524053
(accessed Nobember 10, 2011).

http://en.wikipedia.org/wiki/Staten_Island (accessed January 20, 2013)
http://macaulay.cuny.edu/eportfolios/koreanstudies/demographics/ (accessed Nobember 10, 2011)

뉴욕성결교회
http://www.nykec.org/ (accessed January 23, 2013)

한국인터넷신학대학, "한국교회 목회심방의 문제점과 개선,"
http://www. theology.ac.kr/institute/data-coop/한국교회 목회심방의 문제점과 개선.txt (accessed November 12, 2011).

6) 매거진

국제전도훈련연구소. "태신자 전도의 강점과 약점." 이반젤리즘, February 10, 2008.

________________.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전도에 대한 교육." 이반젤리즘, January 10, 2007.

박명수. "복음전도관 시대의 여성 사역." 신학과 선교 25집, 2000.

이건. "성결의 대사도 존 웨슬레를 추억함." 활천 131호, 1933.

조종남. "웨슬리신학과 성결교회(1)," 활천 405호, October 1983.
______. "웨슬리신학과 성결교회(4)." 활천 408호, May 1984.
______. "19세기 후반의 웨슬레안 성결운동과 감리교회(1)." 활천 497호, April 1995.